

2023 서울서베이 심층분석

2023



2023 서울서베이 심층분석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

김해란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 연구원

최지원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CONTENTS

주제 1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준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X세대 재조명

- 01 서울에 사는 X세대의 특성
- 02 중년으로서 X세대
- 03 은퇴를 준비하는 X세대의 미래
- 04 디지털 사회의 X세대

주제 2 서울청년의 결혼과 출산 가치관 변화

- 01 서울청년, 결혼 및 출산의 변화
- 02 서울청년,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
- 03 서울청년, 자녀에 대한 태도

주제 3 매력도시 서울의 공원·하천과 삶의 질

- 01 서울시민의 수변공간 이용 실태
 - 02 서울시민의 공원 이용 실태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준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X세대 재조명

| | | |
|----|------------------|----|
| | 요약 | 2 |
| 01 | 서울에 사는 X세대의 특성 | 3 |
| 02 | 중년으로서 X세대 | 10 |
| 03 | 은퇴를 준비하는 X세대의 미래 | 20 |
| 04 | 디지털 사회의 X세대 | 25 |

중장년 세대로 접어든 X세대는 연령구조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X세대는 경제발전, 국제화, 민주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거치며 성장한 세대로,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음. 규정할 수 없는 신세대라는 의미에서 X세대라 지칭되었으며 서울의 인구집단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대는 이제 은퇴를 앞둔 중년 세대로 자리 잡음. 이 세대는 현재 다른 세대들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생애주기에서 정점을 지나고 있음

중년으로서 X세대는 여러 사회적 태도에서 중도적인 위치를 차지

X세대의 정치적 태도는 중도를 중심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X세대와 달리 고령의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는 보수적인 특성을 보임. 반면 젊은 연령대의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다소 진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태도, 성역할에 대한 관점 등에도 이전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특성을 보임

X세대는 경제적 은퇴 준비를 하고 있으나, 향후 관계적 측면에 대한 대비도 필요

X세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다른 세대들에 비해 노후대비를 보다 많이 신경 쓰고 있음. 국민연금이나 각종 직역연금 외에도 금융상품이나 개인보험 등을 통해 노년에 대한 준비를 실행하고 있는 중. X세대는 현재 2인 이상의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 1인가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개인적·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X세대는 정보화기기 활용 수준은 높으나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다소 취약하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와 경력 위협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커

X세대는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성장하여 인터넷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은 높음.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뉴미디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일자리나 경력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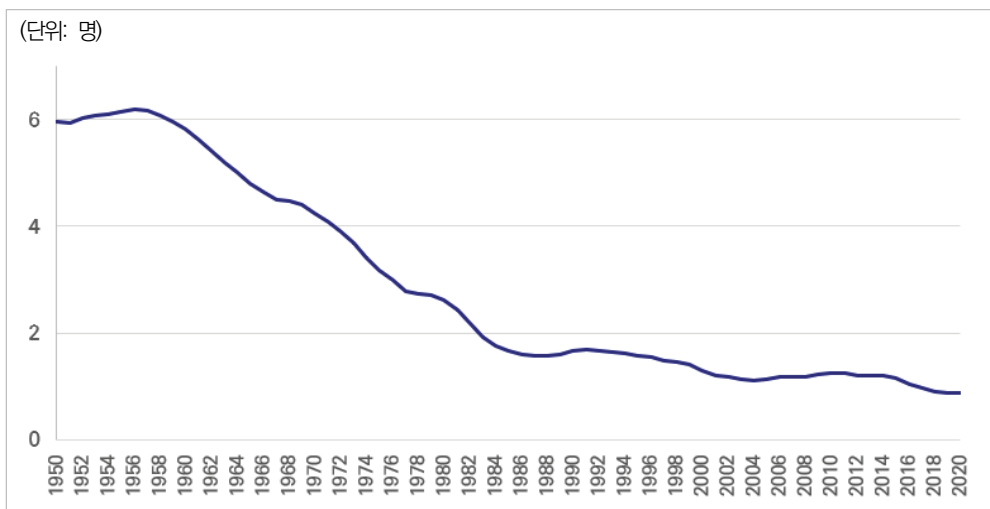
I X세대의 규정과 구성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 사이 1970년대생을 X세대의 핵심 코호트로 분석

- 한 사회는 같은 사회적 경험과 생애주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코호트(cohort)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들 코호트는 상이한 사회적 태도와 생애주기를 보임
- 흔히 세대로 불리우는 연령 코호트는 한국사회의 각 집단별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MZ세대”에 대한 담론 등이 정치, 경제, 사회의 각 영역에 널리 퍼지고 있음. 그러나 소위 MZ세대 담론이 주도적으로 확산하면서, 연령, 경제활동 등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장년세대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실정임
- 김수정(2022)에 따르면 X세대로 지칭되는 현재 중년 세대는 전례 없던 인구 증가를 겪었던 베이비붐세대 이후를 구성하고 있음. 또한 정보화 1세대, 문화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이전 세대와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왔으며, 베이비붐세대와는 다른 경험과 태도를 가짐
- 특히 이들이 청년기를 보낸 1990년대는 한국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며, 냉전이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종언을 맞았으며,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등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었음. 이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개방성과 다양성이 확대된 시기를 경험하며, X세대는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라는 특성이 있음
- 그러나 김여진과 최유석(2021)의 분석에 따르면, X세대는 이와 같은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경험한 동시에 이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 혹은 진입한 직후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98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슈에도 민감한 세대라는 점에서 양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는 신세대라는 의미에서 명명된 ‘X’세대지만, 이제는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기성세대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길어진 기대수명과 더불어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 세대의 특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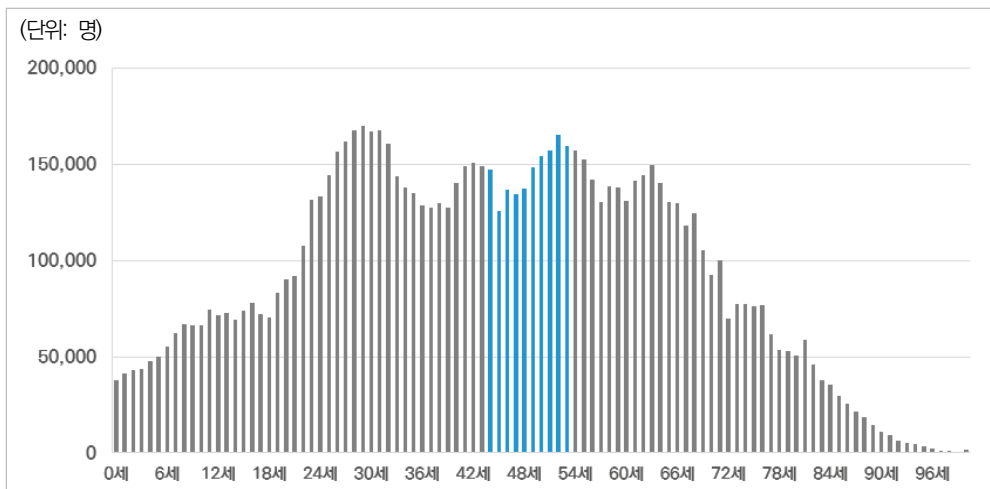
- 세대 구분에는 연령별 기준과 더불어 문화적 특성, 각 사회의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X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따라오는 X세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1945년 시작되어 1965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지속되었으며, 이 베이비붐세대 이후 태어난 1965년 이후부터 1979년 이전 출생자들을 X세대로 지칭함
- 한국의 경우에는 베이비붐이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남에 따라, 195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부터를 베이비붐세대로 지칭하였음
- 한국은 1960년대에 출생아 수가 정점을 유지하였는데, 1965년 출생률이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1970년대부터 출생아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기존과 다른 인구구조와 사회경험을 가지는 집단이 발생하였음. 이들은 급격한 민주화, 경제발전, 문화개방 등을 경험하는 새로운 세대로 탄생했으며, 현재는 2020~2030년대 걸쳐 대규모로 은퇴를 준비하는 기성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자료: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그림 1-1] 합계출산율 추이

- 동 분석에서는 그중에서도 1970년부터 1979년 출생자(2023년 말 현재 약 44세에서 53세 정도)를 X세대의 핵심 연령대로 규정. 이들은 현재 베이비붐세대를 뒤이어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 전체 인구는 9,386,03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연령은 1994년생인 29세로 169,782명이 서울에 거주 중임. 이를 중심으로 1991년부터 1996년 사이(27세에서 32세) 출생 인구가 각 세별로 16만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
- 분석대상인 X세대는 2023년 현재 44세인 1979년생부터 53세인 1970년생까지로, 모두 1,467,05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출생 인구가 각 세별로 12만~16만 명으로 인구집단을 구성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15.6%를 차지. 이 중 남성은 723,687명이며 여성은 743,366명으로 약 0.97의 성비를 보이고 있음
- X세대와의 비교를 위해 1922년생부터 1954년생을 시니어세대, 1955년부터 1969년생은 베이비붐세대, 1980년부터 1995년생은 밀레니얼세대, 1996년 이후 출생은 Z세대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함.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와 시민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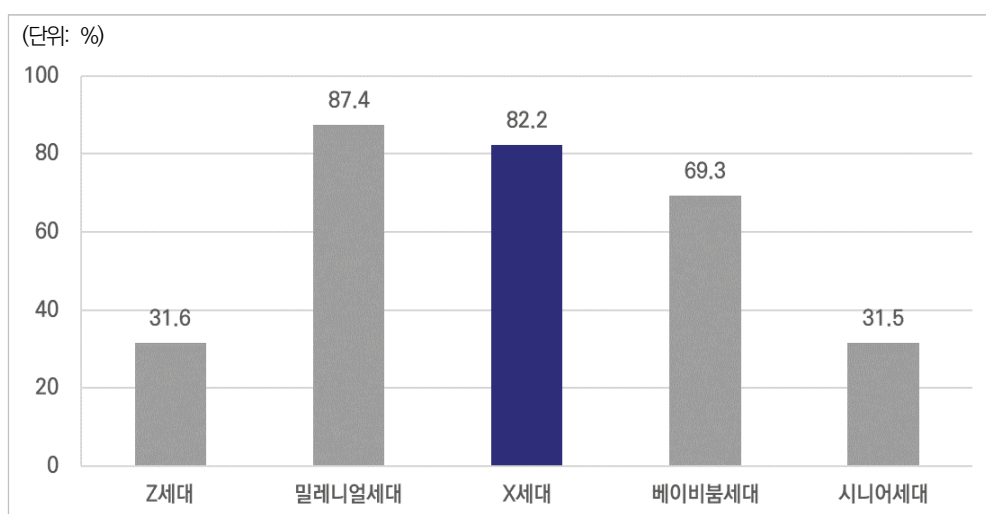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

[그림 1-2] 서울시 각 연령별 인구

I 서울 X세대(44~53세)의 경제활동

서울의 X세대는 전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경제 상황

- 세대별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밀레니얼세대가 87.4%로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X세대는 82.2%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세대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9.3%로 눈에 띄게 낮아지며, 시니어세대의 경제활동율은 더욱 낮아져 31.5%만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음
- Z세대는 학령기를 포함하고 있어, 64.2%가 아직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는 31.6%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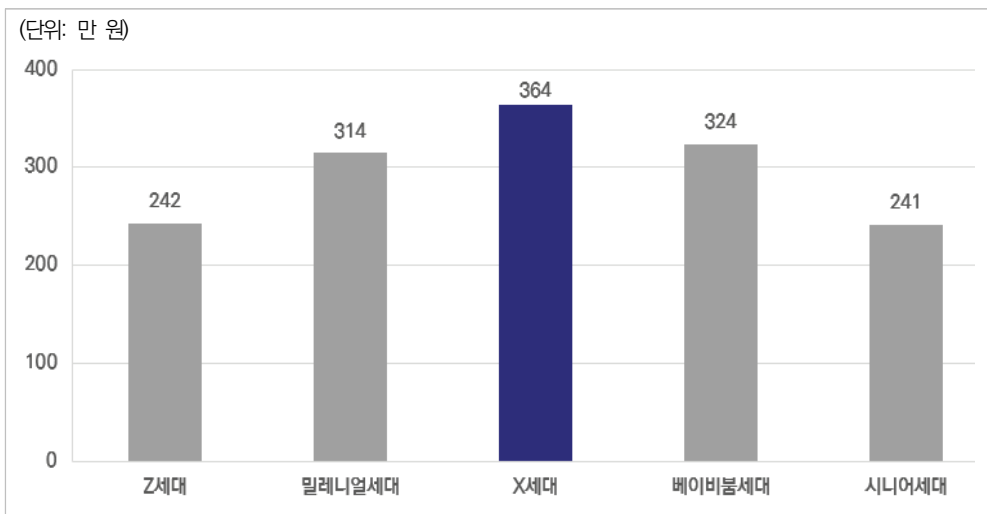
주 : 직업 중 '학생, 주부, 무직, 기타' 제외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3] 세대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

- 지난 1년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X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약 364만원 수준으로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X세대를 중심으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세대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밀레니얼세대가 월평균 300만 원 초반대의 근로소득을 보였으며,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세대와 아직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적은 Z세대는 200만 원 중반대의 소득을 보여 전체적으로 X세대를 정점으로 소득수준이 대칭적인 형태를 보임
- 이는 생애주기상 X세대가 속한 연령대가 현재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동시에 본격적인 은퇴 이전으로, 직업이력이 가장 긴 시기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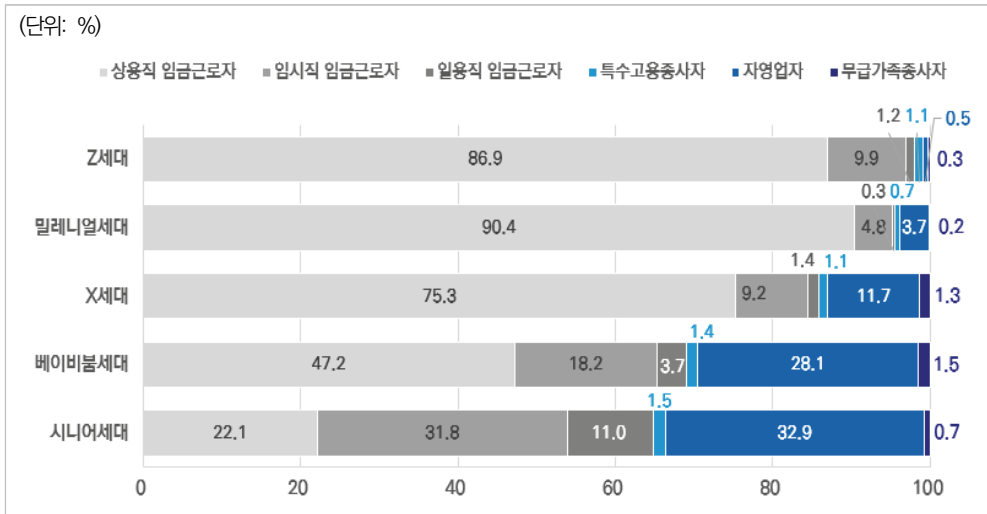
주 : 50만원 단위의 범주형 응답을 바탕으로 전체 평균을 산출한 후 재구성하여 추정한 수치임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조조사, 2023

[그림 1-5] 세대별 월평균 근로소득

- 세대별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X세대의 75.3%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속하며, 임시직은 9.2%, 자영업은 11.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분포를 보임
- 밀레니얼세대의 절대다수인 90.4%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X세대는 4명 중 3명이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자영업 비중을 살펴보면, 시니어세대의 32.9%, 베이비붐세대의 28.1%가 자영업자인 것에 비해 X세대의 자영업자 비중은 11.7%로 낮은 편이나, 향후 기업에서의 은퇴가 시작되면 자영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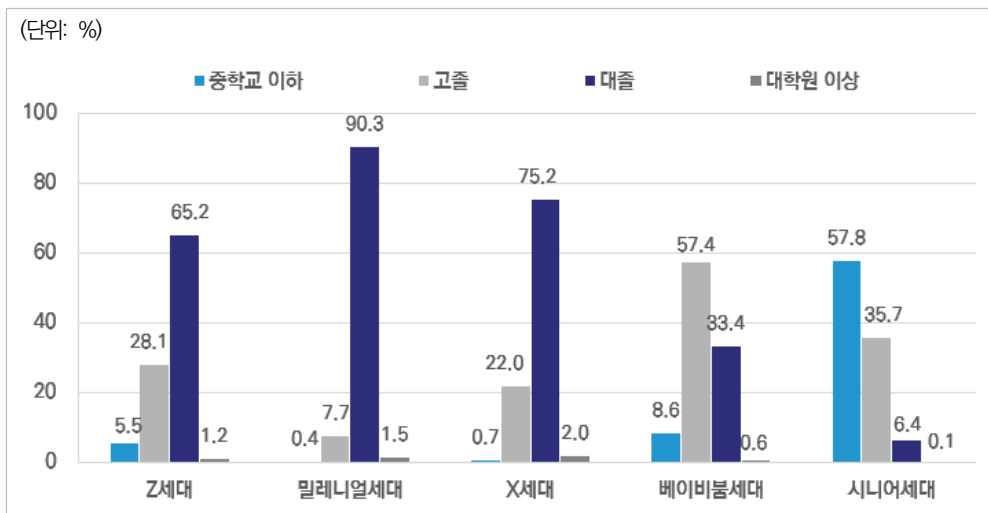
[그림 1-6] 세대별 고용형태

Ⅰ 서울 X세대(44~53세)의 인구사회학 특성

서울의 X세대는 이전 세대, 혹은 다른 지역의 X세대에 비해 매우 높은 학력을 보임

- X세대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보다도 대학 진학률이 월등하게 높아진 세대라는 점
 - 서울에 거주 중인 X세대 대학 졸업자 비율은 75.2%로, 베이비붐 세대의 33.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임
 - 그 뒤를 잇는 밀레니얼세대의 대학 졸업 비율은 90.3%까지 상승하긴 하지만, 이미 X세대부터 대학 진학률이 월등하게 높아지기 시작

- 같은 기간 한국 전체의 대학 진학률은 평균 32.24%(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서울지역의 X세대 대학진학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임. 이는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높은 진학률과 더불어, 대학 졸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이주하는 경향을 잘 보여줌
- 반면 시니어세대의 경우 중학교 이하 학력이 57.8%에 이르나, 베이비붐세대에서는 이 수치가 8.6%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세대 간 학력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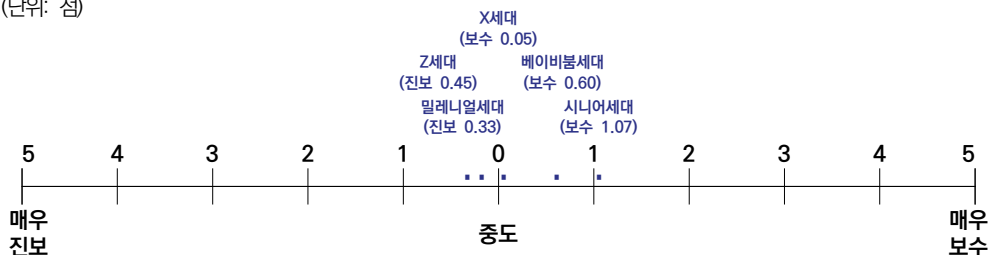
[그림 1-7] 세대별 학력

I X세대의 가치관

X세대는 평균적으로 중도에 위치, X세대를 중심으로 진보적 태도와 보수적 태도 양분

- 일반적으로 X세대는 진보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보수화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제 서울에 살고 있는 X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에 위치하고 있음
- X세대를 중심으로 베이비붐세대가 약간의 보수성을 보이며, 시니어세대는 조금 더 강한 보수성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X세대보다 연령대가 낮은 밀레니얼세대는 X세대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며, Z세대는 이보다도 조금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서울에서는 20~30대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 X세대의 경우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보수 0.11점, 여성은 진보 0.01점으로 다소 차이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보수성이 강해지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으나, 세대 간 정치적 성향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 성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치담론 영역에서의 세대 간 갈등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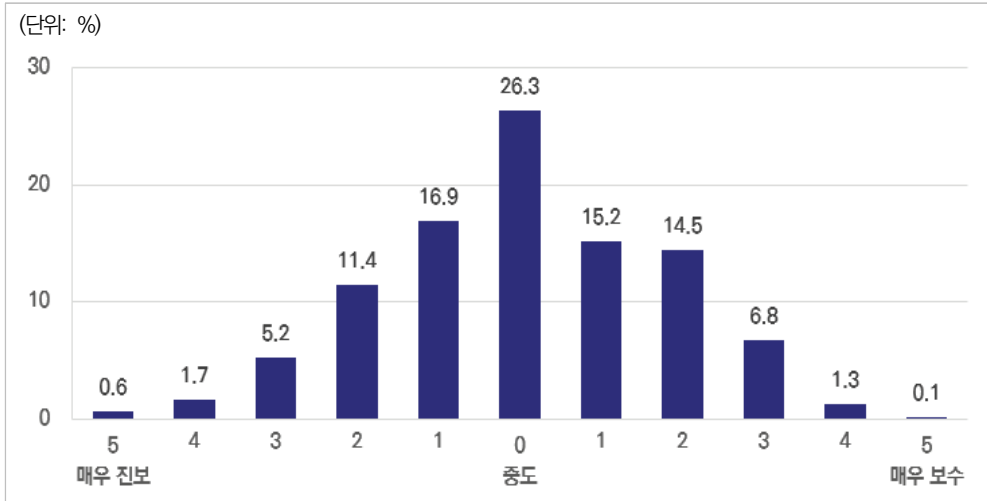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8] 세대별 정치성향

- X세대 내에서는 완전히 중도인 의견이 26.3%이며, 아주 약간 진보 혹은 보수 성향을 띄는 응답까지 합치면 58.4%로 나타남
- 진보 혹은 보수의 성향을 나타내는 강도로 1~5 정도의 응답지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3 이상이 되는 이른바 강한 진보, 강한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진보가 7.5%, 보수가 8.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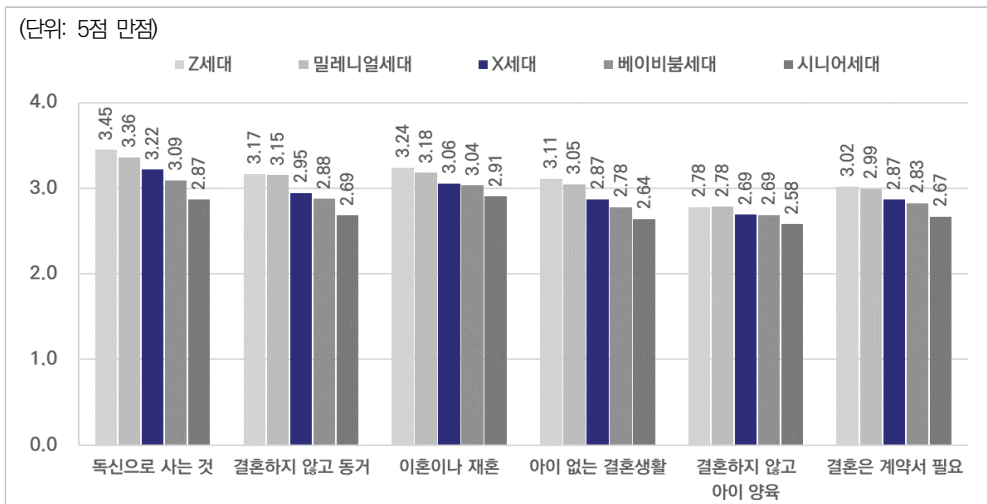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9] X세대의 정치성향

- 다양한 차원에서 삶의 방식이나 가족 가치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가족 가치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짐
-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X세대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보다 높은 3.22점의 점수를 보여,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니어세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베이비붐세대 이하로는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하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응답에 비해 다수를 이룸
-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니어세대부터 베이비붐세대, X세대에 이르기까지 반대의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였고, 반대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

- ‘이혼이나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니어세대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X세대는 동의의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점차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
-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니어세대나 베이비붐세대, X세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아이 없는 결혼생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함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 의견을 보임
- ‘결혼을 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Z세대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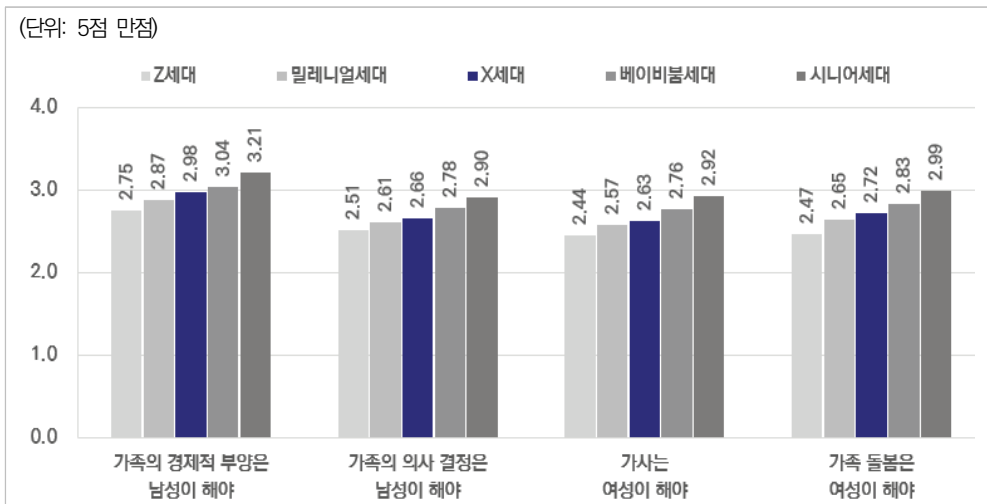


주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10] 세대별 가족가치관

- 성역할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X세대는 그 중간에 위치
 - ‘가족의 경제적 부양이 남성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시니어세대와 베이비붐세대에서는 아직까지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X세대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등하게 나타남
- ‘가족의 의사결정은 남성이 해야한다’, ‘가사는 여성의 몫이다’,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일은 여성의 몫이다’라는 의견 등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는 세대와 관계 없이 대체로 반대의 의견이 우세하여, 적어도 서울지역에서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변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성역할과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



주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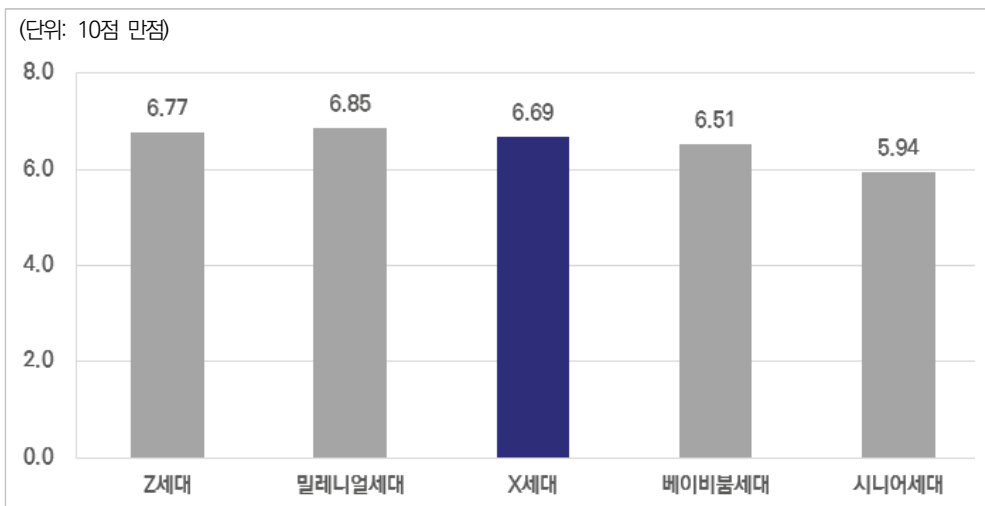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11] 세대별 성역할 태도 인식

I X세대의 마음

X세대는 삶의 질 측면에서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하강기를 대비하여 재정, 건강, 관계, 심리적 측면에서의 대비책 필요

- X세대의 종합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69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간 행복도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대 간에는 밀레니얼세대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의 행복도는 눈에 띄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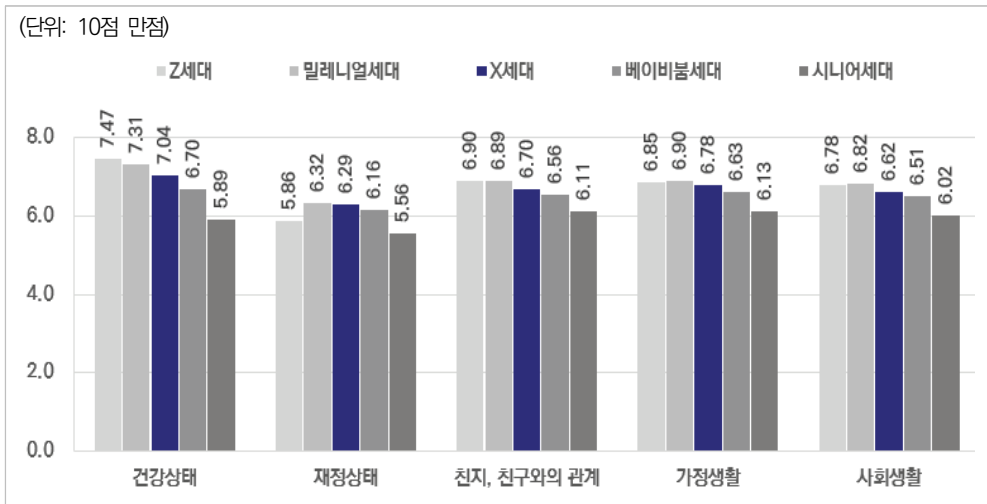
주 : 0 가장 불행한 상태 ~ 10 가장 행복한 상태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12] 세대별 종합 행복도

- 삶의 행복도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건강상태, 재정상태, 지인과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 건강상태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두드러지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X세대의 경우 10점 만점에 7.04점으로 높게 나타남

- 재정상태의 만족도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X세대와 밀레니얼세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시니어세대와 Z세대에서 재정상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X세대의 친구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행복도가 낮게 나타남. 따라서 향후 X세대의 친구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시니어세대는 모든 부분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와 재정상태에서의 행복도가 5점대로 집단 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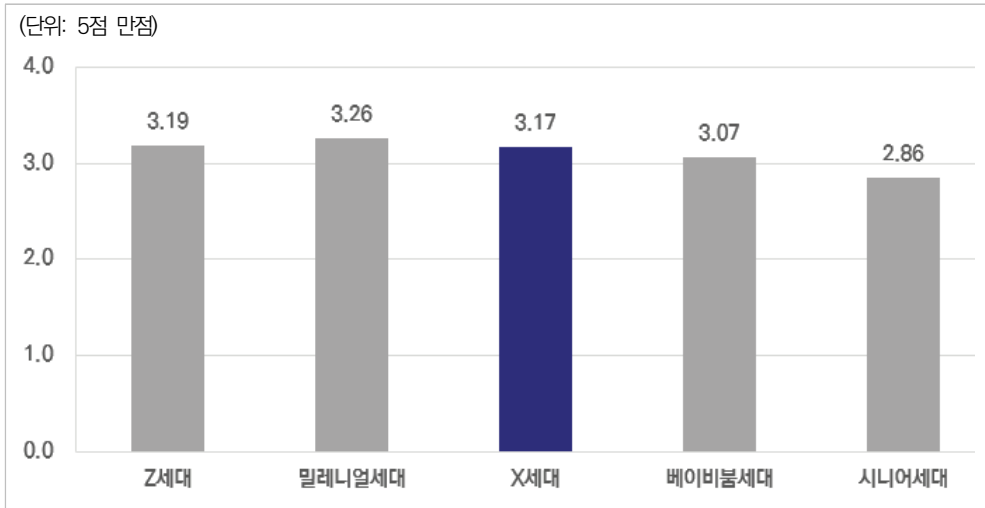
주 : 0 가장 불행한 상태 ~ 10 가장 행복한 상태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13] 세대별 분야별 행복도

-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스트레스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종합 행복도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높아지는데, 스트레스 역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지만, 밀레니얼세대나 Z세대보다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낮음
-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행복도와 스트레스가 모두 낮아지는 것은 연령대별 감정적 반응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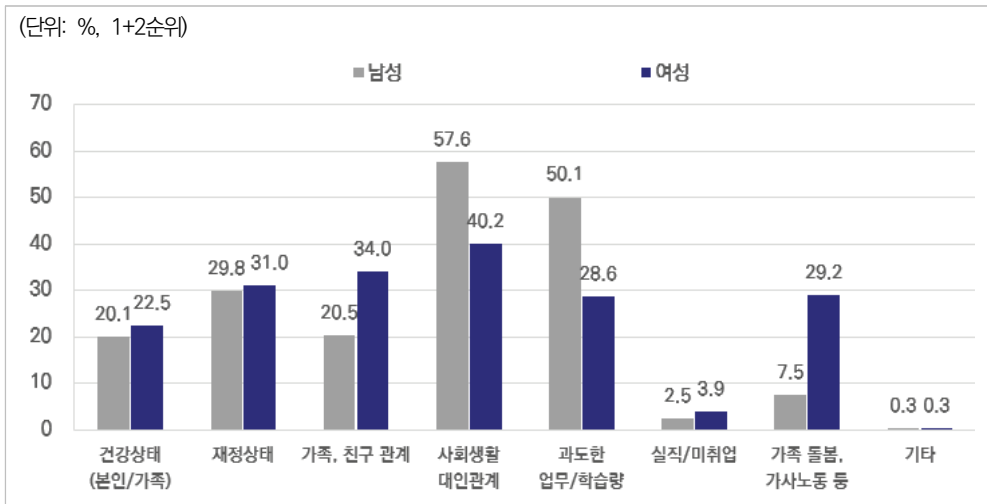
주 : 1 전혀 느끼지 않았다, 2 느끼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느낀 편이다, 5 매우 많이 느꼈다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14] 세대별 일상생활 스트레스

-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요인(중복응답)에 대한 X세대의 응답은 남녀가 차이를 보임
 - 남성은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과도한 업무를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한 반면, 여성은 사회생활과 가족·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사를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
 - X세대 남성의 98.9%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57.6%)와 높은 업무 강도(50.1%)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여성은 65.1%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33.5%가 주부인 점을 고려할 때, 각자가 속한 일터와 가정에서 대인관계(사회생활 40.2%, 가족·친구 34.0%)와 가사노동의 부담(29.2%)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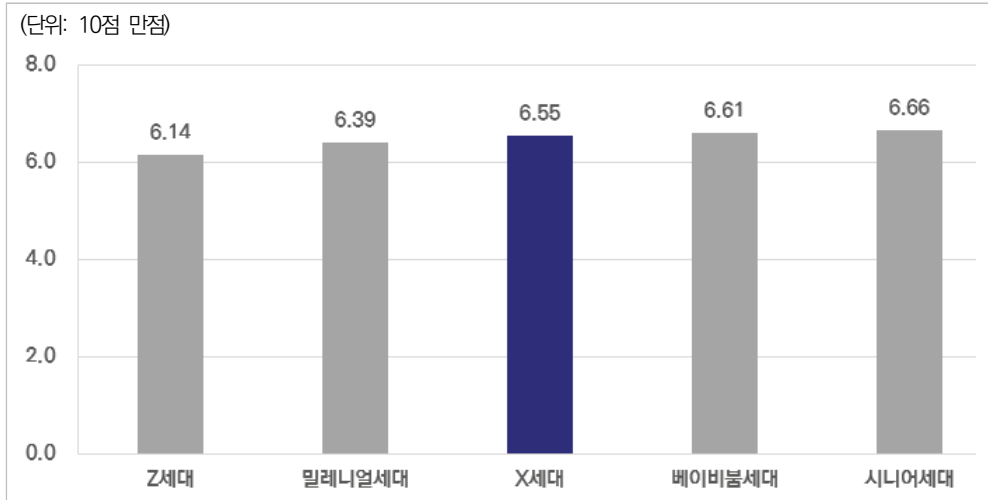
- 그 외 남성과 여성은 공통적으로 재정상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유사하게 나타남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15] X세대의 성별 스트레스 요인

-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X세대를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시니어세대들은 자신의 일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부여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니어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등 소위 기성세대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밀레니얼세대, Z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
- 이는 청년층의 경력상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등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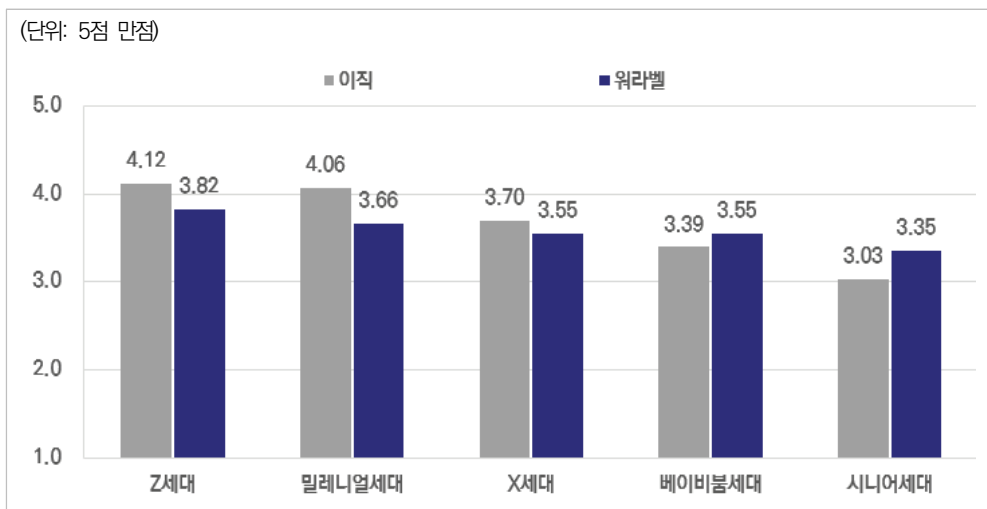
주 : 0 전혀 가치 없다 ~ 10 매우 가치 있다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1-16] 자신의 일의 전반적 가치

- 세대에 따라 일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이직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침.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와 같은 청년세대들은 이직에 대해서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X세대는 청년세대만큼은 아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이직에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임
- X세대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97년 외환위기를 즈음하여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함. 따라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비교적 강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전 세대에 비해 이직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임
-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 시니어 세대의 경우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베이비붐세대는 동의하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X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의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찬성의 의견이 더 높음

- 일과 여가 시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X세대는 기존 세대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
 - 전 연령에 걸쳐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전체 평균 3.60점),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나 시니어세대와 유사하게 전체 평균 보다 낮은 반면,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는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여가 선호도를 보여 세대 간 차이를 보임
 - 특히, Z세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워라벨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임



주 :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보통, 4 다소 동의, 5 매우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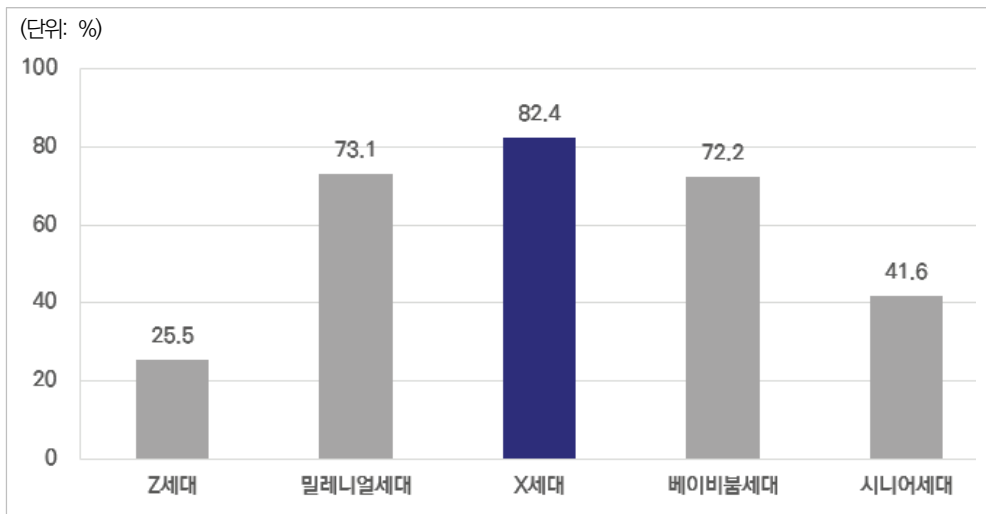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1-17] 세대별 이직과 워라벨에 대한 태도

I X세대의 노후준비

X세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만큼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으나, X세대에서 1인가구 증가 가능성은 잠재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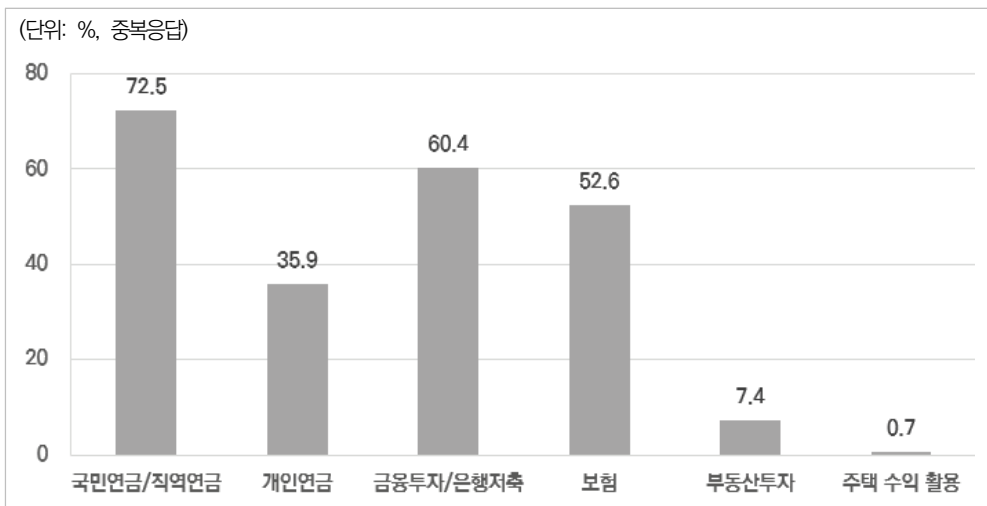
- 은퇴가 시작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X세대는, 한국사회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X세대의 경우 82.4% 정도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밀레니얼세대의 7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임
- 베이비붐세대는 72.2%가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X세대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니어세대 역시 41.6%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18] 세대별 노후생활자금 준비 비율

- X세대의 노후 생활자금 준비는 주로 국민연금과 은행저축 등으로 이루어짐
 - 72.5%가 국민연금과 각종 직역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는 앞서 X세대의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75.3%로 집계된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로, 상용직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을 시사함
 - 60.4%가 주식, 펀드 및 은행저축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최근의 적극적인 재테크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52.6%가 종신보험, 암보험 등의 보험을 통해 준비한다고 응답
 - 35.9%가 주택연금, 저축연금 등의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는 7.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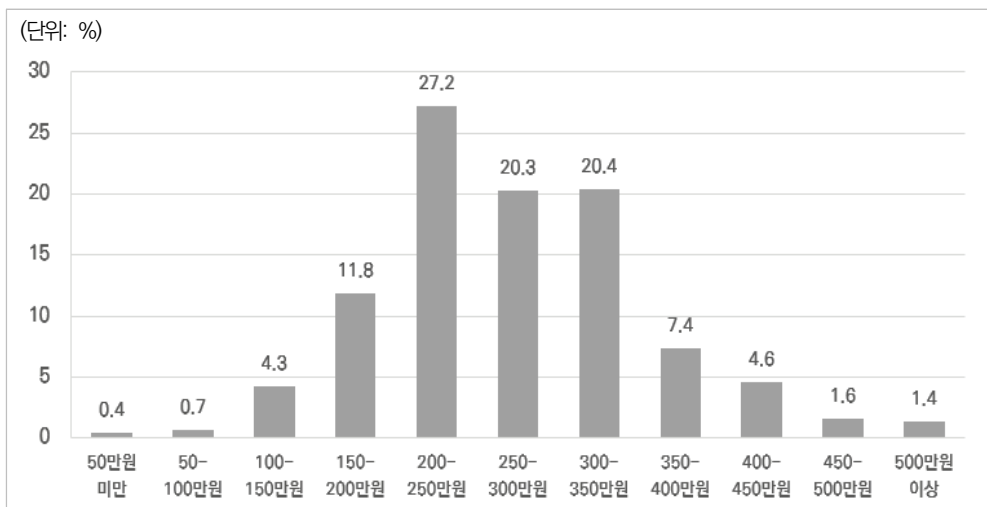


- 주: 1) 직역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2) 개인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3) 은행저축: 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4) 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등
 5) 주택수익 활용: 주택 규모를 줄여 발생하는 수익 활용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19] X세대의 노후생활자금 준비 방법

- 서울의 X세대는 노후자금으로 월평균 200만 원(현재 물가 기준) 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X세대의 27.2%가 월평균 200~250만 원 미만, 20.3%가 250~300만 원 미만의 생활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4%는 300~350만 원 미만의 생활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70% 가까운 응답자들이 200~350만 원 미만 정도의 범위에서 노후 생활비를 예상하고 있음
 - 한편,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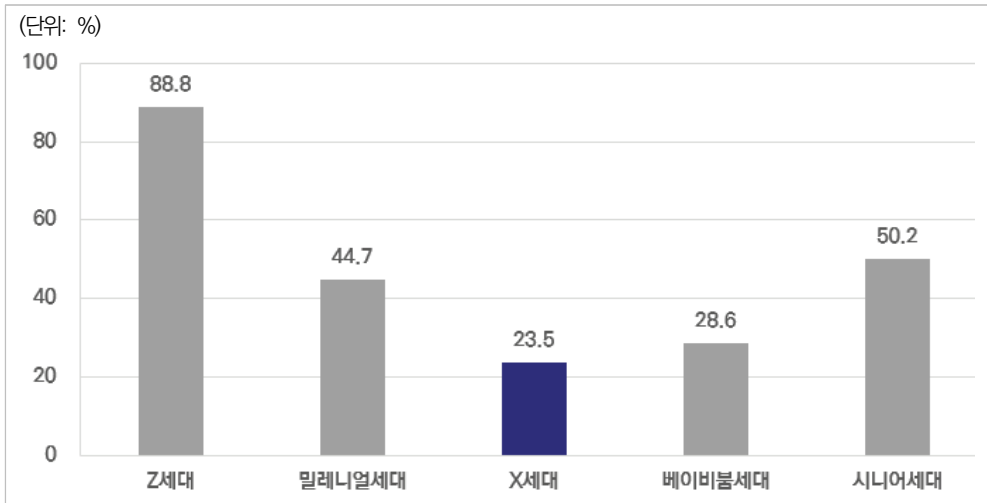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1-20] X세대의 걱정 노후생활비

- X세대의 1인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1인가구 증가 가능성은 잠재적 이슈
 - 서울시의 1인가구 비중은 3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그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서울의 1인가구는 주로 Z세대가 구성하고 있으며, Z세대의 대부분인 88.8%가 1인가구임
 - 다음으로는 시니어세대의 절반인 50.2%가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밀레니얼세대도 44.7%가 1인가구를 구성

-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상대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적는데, X세대의 1인가구 비율이 23.5%로 가장 낮음
- 현재 X세대의 1인가구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후 연령대가 상승하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X세대 역시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맞이하게 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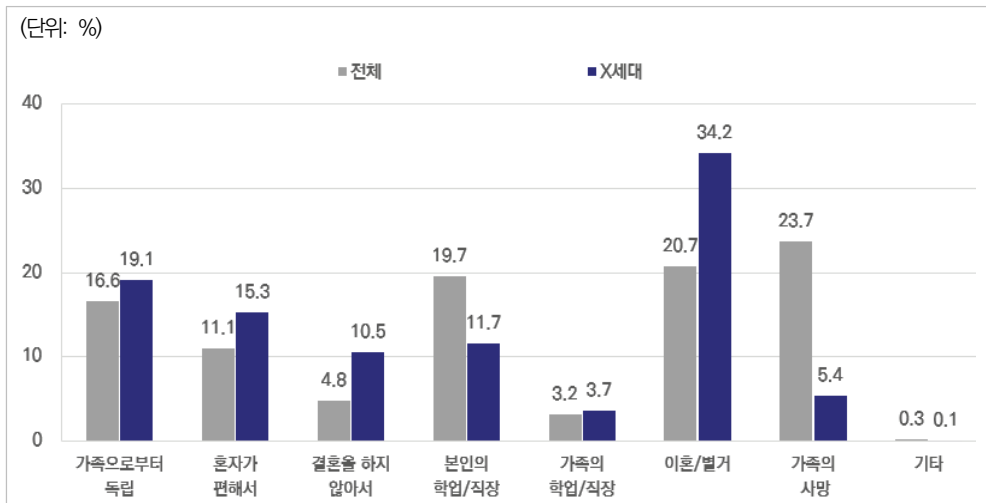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2023

[그림 1-21] 세대별 1인가구 비율

- X세대가 1인가구인 가장 큰 이유는 이혼 및 별거 등 혼인관계의 해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가족구성 등 관계적 측면 등도 중요
 - X세대의 34.2%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균에 비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1인가구의 비율은 5.4%로 높지 않음
- 대체로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 미혼인 상태에서 가족과 독립해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특히 X세대는 ‘혼자가 편해서’(15.3%)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10.5%) 혼자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가족이나 본인의 학업, 직장 등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전체의 15.4%로, 이 역시 X세대의 1인가구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
- 따라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가족구성 등 관계적 측면도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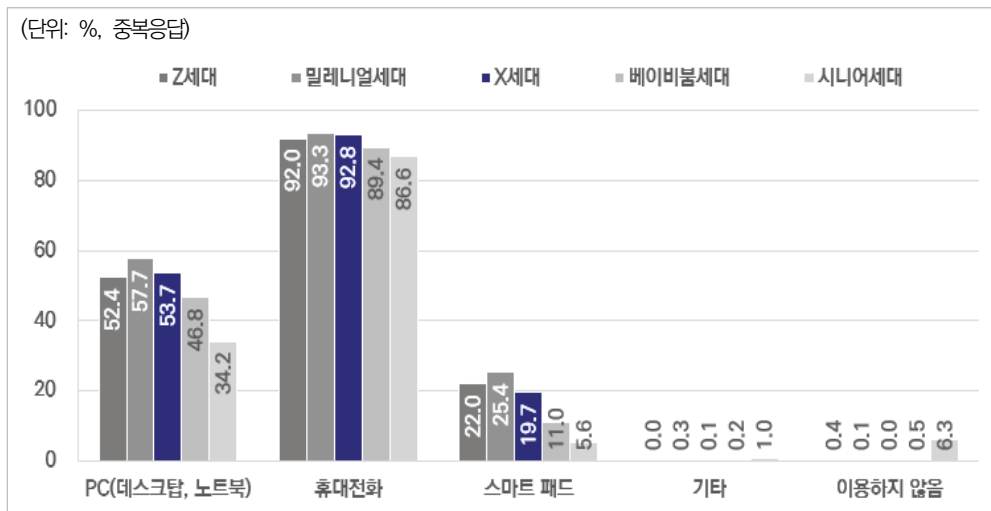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2023

[그림 1-22] X세대의 1인가구 사유

I X세대의 정보기기 활용

X세대는 정보기기 활용 측면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활용도를 보이나, 청년세대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다소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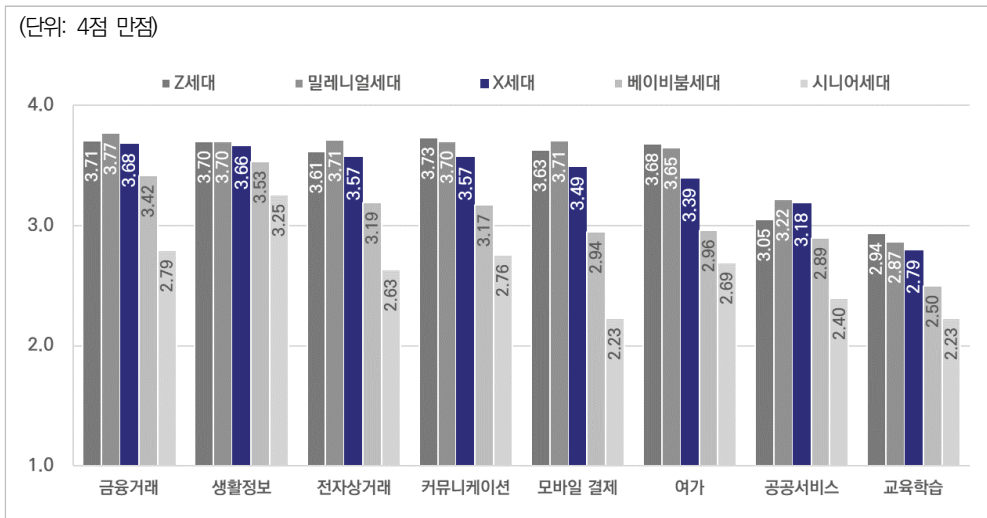
- X세대는 PC의 보급 및 인터넷 발달과 함께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 X세대는 PC가 활발하게 보급되는 시점에 학교를 졸업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인터넷 활용 비율이 높음
- PC를 이용한 인터넷 활용도의 경우에는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음
-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률은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X세대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임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1-23] 세대별 인터넷 이용 디지털기기

- X세대가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가장 많이 활용한 서비스는 금융거래이며 가장 빈도가 낮은 것은 교육학습 서비스
 - 금융거래(3.68점), 생활정보(3.66점), 전자상거래(3.57점), 커뮤니케이션(3.57점), 모바일 결제(3.49점) 등으로 높은 빈도를 보임
- 전반적으로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보다 디지털 기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밀레니얼 세대 이전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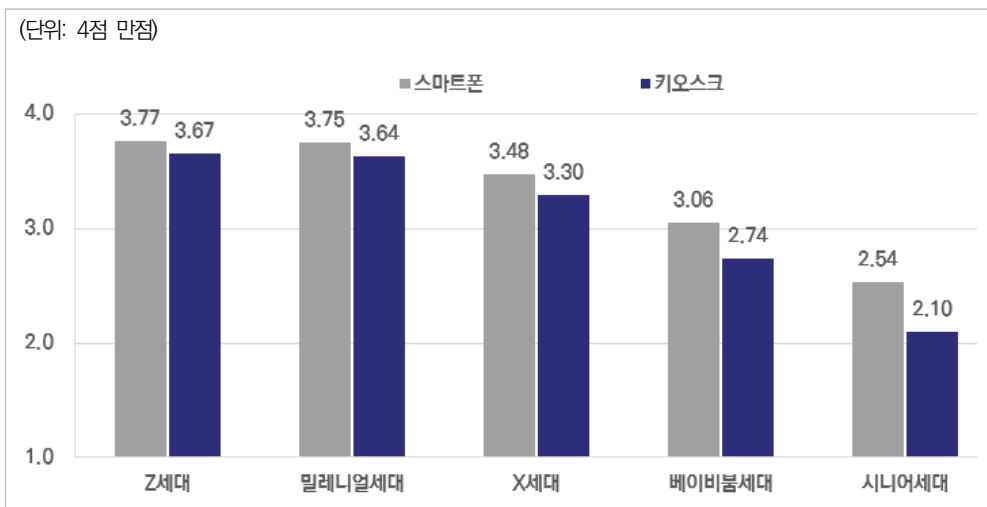
주 :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2 별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3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4 자주 이용한다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1-24] 세대별 인터넷 서비스 이용 정도

- 최근 사회적 이슈인 디지털 접근 불평등 문제에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무인 정보단말기)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
-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스마트폰에 비해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시니어세대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의 활용 능력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접근성이 떨어짐

-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와 비교해서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능숙한 것으로 보이나,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에 비해서는 활용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X세대는 PC 등 전통적인 정보통신 기기 활용도는 높은 편이나,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활용도에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다소 취약함
- 한편,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활용한 능력에 있어서 세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주1 : 전혀 하지 못한다, 2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3 잘 하는 편이다, 4 매우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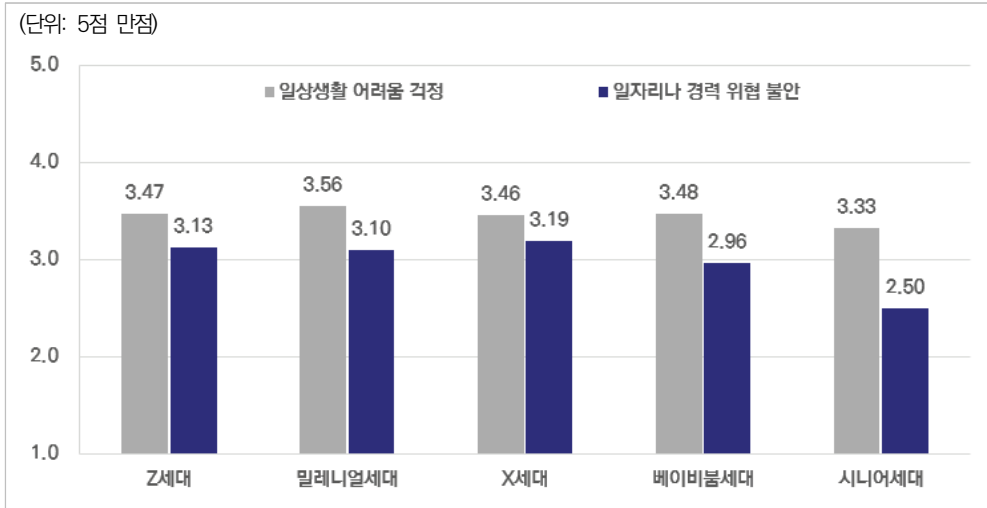
주2 : 스마트폰 활용 정도는 7개 항목에 대한 평균, 키오스크 활용 정도는 2개 항목에 대한 평균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1-25] 세대별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능숙도

-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젊은 세대가 오히려 더 높으며, X세대는 일자리나 경력 위협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큼
-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앞으로의 디지털 전환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경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디지털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더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시니어세대는 디지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디지털 능력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X세대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상생활 어려움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일자리나 경력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1-26] 세대별 디지털 전환에 대한 두려움

참고문헌

김수정. 2022. 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그리고 MZ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29-58.

김여진, 최유석. 2021. 세대별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세대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727-73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서울청년의 결혼과 출산 가치관 변화

| | | |
|----|-----------------------|----|
| | 요약 | 30 |
| 01 | 서울청년, 결혼 및 출산의 변화 | 31 |
| 02 | 서울청년,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 | 39 |
| 03 | 서울청년, 자녀에 대한 태도 | 50 |

요약

서울청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전국 대비 가장 활발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서울의 혼인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초혼연령은 서울이 더 높으며 남성의 연령이 여성에 비해 높음. 서울남녀의 연령별 혼인율은 30~34세에서 가장 높으며, 연령별 혼인율에서 여성의 연령대가 남성에 비해 낮음. 서울의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내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 청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함.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은 편이라는 사실은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를 갖기에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직업적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 또한 서울청년의 결혼 및 출산행위는 전국과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활발하지 않은 양상을 보임. 따라서 이러한 경향이 반영하고 있는 서울의 일자리, 인구이동 등의 변화 요소들을 지방인구와의 관계와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 있음

서울청년의 결혼과 동거, 자녀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 나타내

서울청년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 가까우며, 동거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동의함. 또한, 서울청년은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움

그리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 및 주택 문제 해결 등 경제적 차원의 향상과 함께 문화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미 각 개인이 혼인 및 자녀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는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구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과거보다 훨씬 변화된 인구에 적합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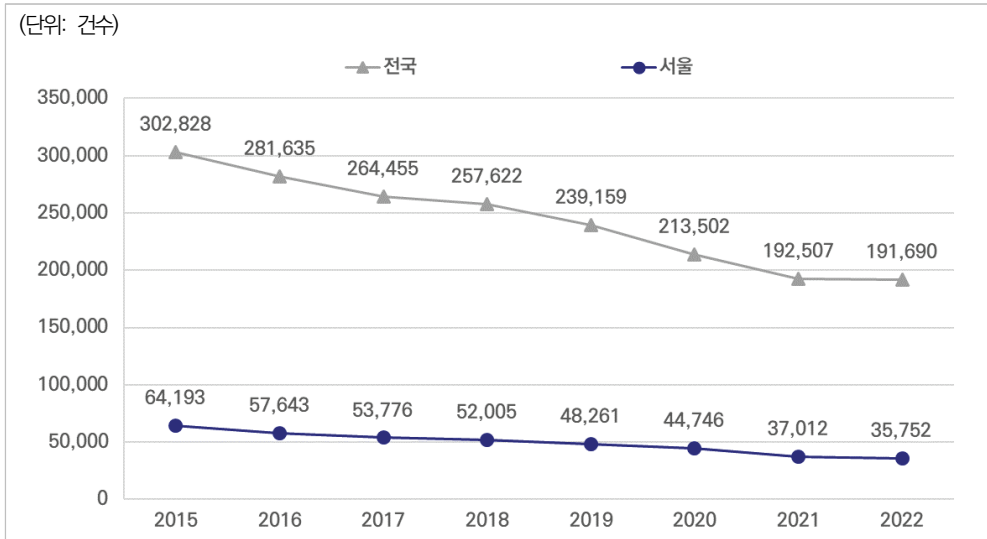
- 최근 언론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이르는 등 줄어드는 출생아 수에 주목하며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뉴욕타임즈는 흑사병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던 14세기 유럽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할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인구감소 경향에 대해 인구학자들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이에 인구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서울청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 변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전에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관련 통계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서울시민의 행동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의 변화를 관찰할 예정. 이를 위해 통계청의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서울의 혼인건수, 평균초혼연령, 연령별 혼인율,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모의 평균 출산연령, 출생성비 등을 살펴보았음

I 서울청년, 결혼 및 출산 행위 변화

서울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서울의 혼인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2015년 64,193건에 달했던 혼인건수는 2020년 44,746건, 2021년 37,012건에서 2022년에 35,752건으로 줄어 2015년을 기준으로 7년 사이 44.3% 감소
- 서울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출산이 대부분 혼인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혼인이 출산의 전제 조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혼인건수 감소는 서울지역 저출산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임

-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혼인 또는 출산으로의 전이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보고 몰려들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혼인 건수 하락은 서울 지역만의 상황이 아닌 한국 전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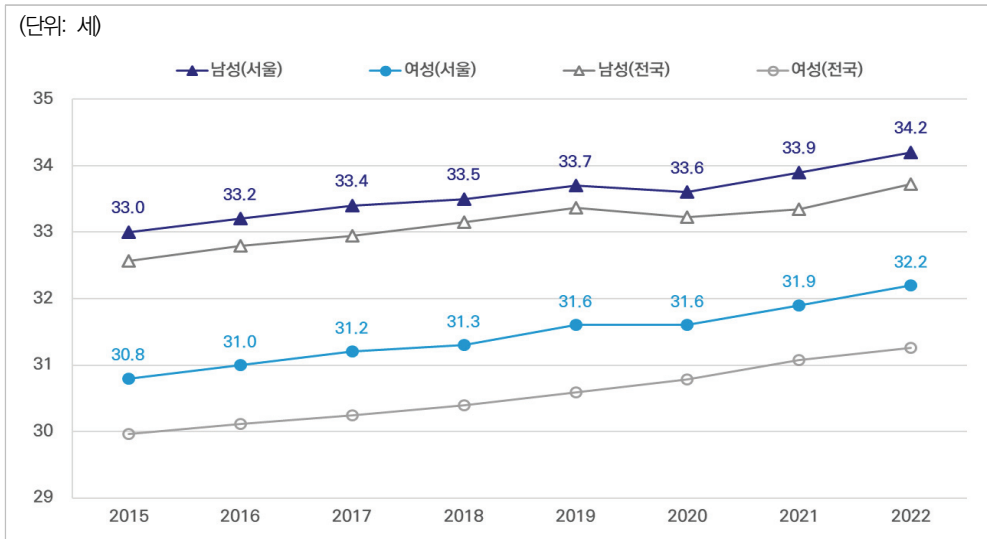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1] 혼인건수 추이

- 서울의 남녀 평균초혼연령은 전국에 비해 높으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임
 - 2015년 서울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33.0세로 전국 32.6세에 비해 높았으며, 2022년에는 각각 34.2세, 33.7세로 높아짐
 - 2015년 서울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30.8세, 전국은 30.0세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각각 32.2세, 31.3세로 높아짐
 - 서울과 전국의 평균초혼연령 격차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높으며, 아마도 이러한 성별 차이는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적 성공 욕구가 강한 여성들이 비슷한 조건의 남성들에 비해 대도시에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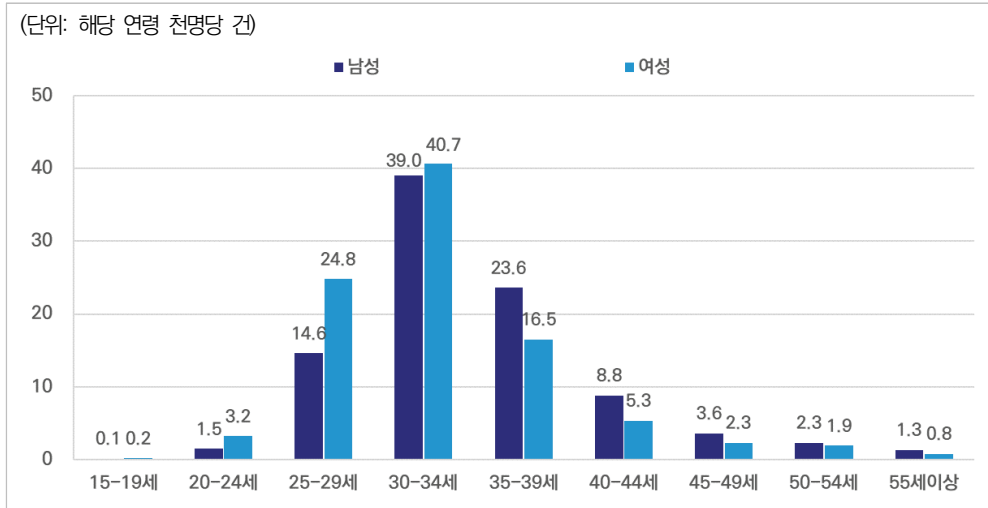
- 서울에 사는 여성과 남성 모두 혼인연령이 30대 중반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 연령대가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30대 기혼남녀는 출산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2] 평균초혼연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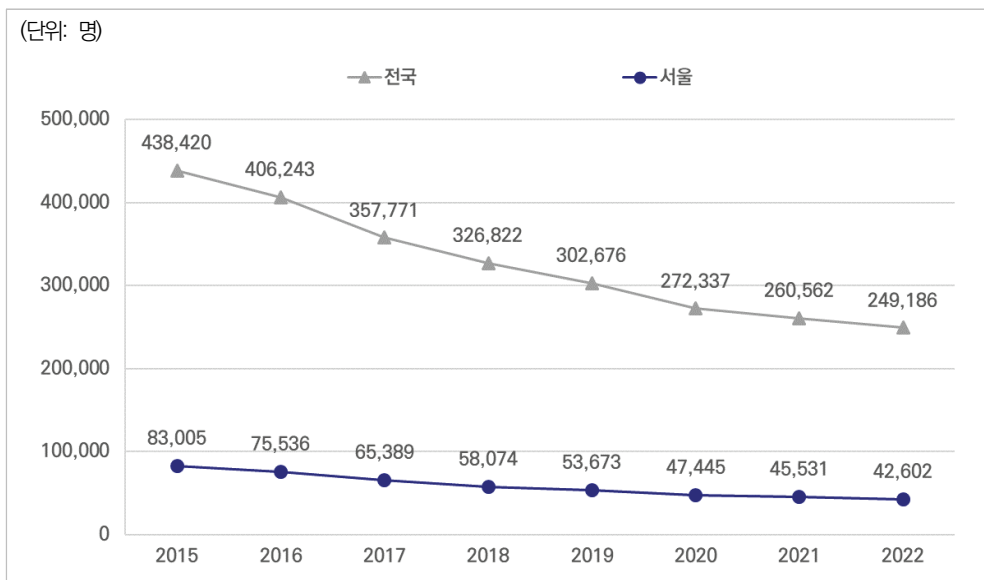
- 서울남녀의 연령별 혼인율은 30~34세에서 가장 높으며, 연령별 혼인율에서 여성의 연령대가 남성에 비해 낮음
 - 2022년 서울 남성의 연령별 혼인율은 30~34세 39.0%, 35~39세 23.6%, 25~29세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서울의 20대 남성에게는 결혼이 더 이상 자신과 관련 있는 주요 생애사건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서울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은 30~34세 40.7%, 25~29세 24.8%, 35~39세 16.5% 등의 순으로, 남성에 비해 혼인연령대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혼인연령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

[그림 2-3] 서울의 성별/연령별 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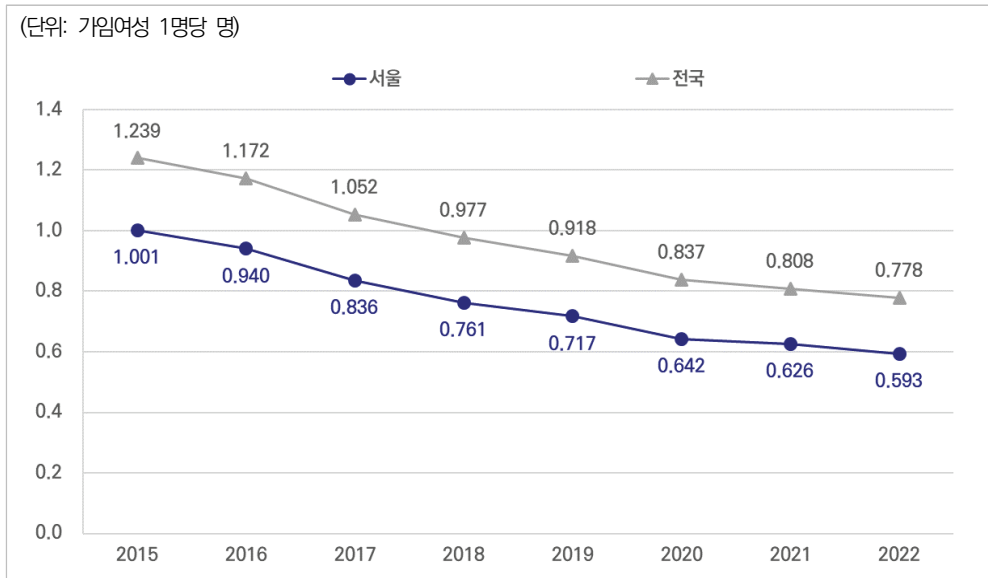
- 서울의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
 - 출생아 수는 2015년 83,005명에서 2020년에는 47,445명, 2021년에는 45,531명, 2022년 42,602명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48.7% 감소하였음
 - 이러한 출생아 수의 급격한 하락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예를 들어 유치원의 수요 감소나 소아과 병원의 환자 급감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식의 변화는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조직 등에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가까운 변화를 강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4] 출생아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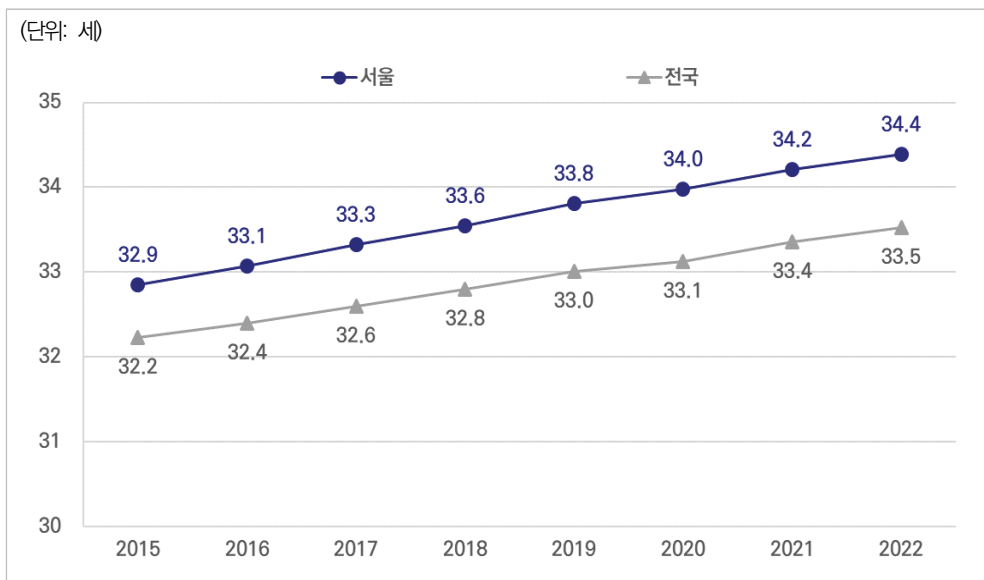
-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 비해 낮으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2015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00으로 전국 1.24명에 비해 적음
 -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전국 0.78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서울과 전국 모두 매년 감소
 - 특히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변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5]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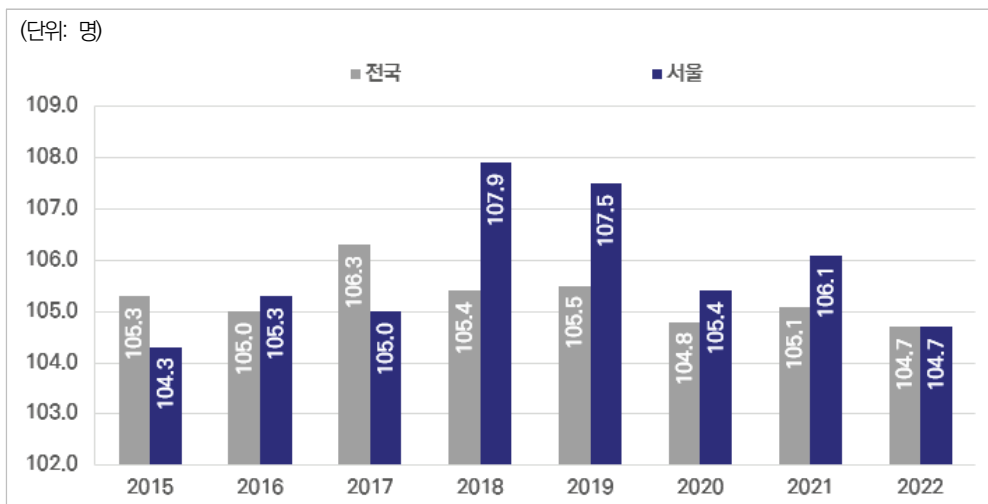
-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서울이 전국에 비해 높으며, 매년 상승
 - 2015년 서울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9세이며 전국은 32.2세로 서울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더 높음
 - 2022년 서울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4.4세이며 전국은 33.5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매해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
 - 30대 중반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아마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태어난 자녀 양육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만약 이 어머니가 또 다른 자녀를 원하게 되면 이미 30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신체적으로도 임신이 쉽지 않은 시기에 이르게 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6]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

- 서울의 출생성비 변화로 볼 때 서울은 특정 성에 대한 선호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
 - 서울의 출생성비는 2015년 104.3명 수준에서 2018년 107.9명, 2019년 107.5명으로 다소 높아졌다가, 다시 2020년 105.4명, 2021년 106.1명, 2022년 104.7명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이 없이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성비가 103명에서 106명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울은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는 선호가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주 :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7] 서울의 출생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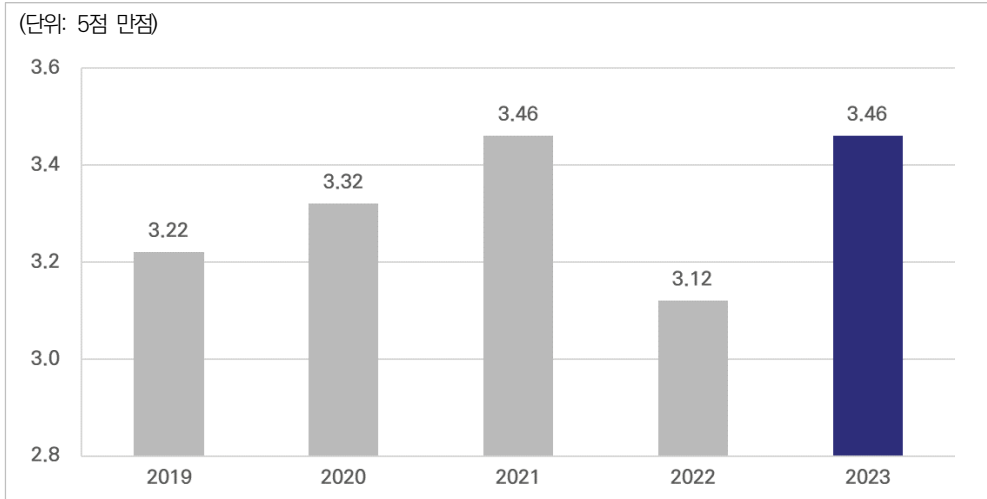
-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경향은 변화하는 결혼과 동거에 관한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결혼과 동거를 개인적 선택으로 보는 입장이 광범위하게 퍼질수록 미혼율은 상승하고 이에 비례하여 출산율은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혼인과 출생을 경험해야 하고 특히나 많은 자녀들은 복의 상징이었으나, 결혼과 자녀는 선택이 되었으며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성공이 중시되면서 전통적인 인생설계는 그야말로 과거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분위기
-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통해 서울청년(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 미혼 대상)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여 실제 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들의 태도 변화를 경험적으로 탐색

I 서울청년,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서울청년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 가까움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음. 2019년 ‘어떤 경우라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023년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이 문항들은 매우 반대 1점부터 매우 찬성 5점까지 5점 척도의 응답구조를 가짐. 2023년 자료를 제외한 조사의 응답값은 역코딩하여 분석함. 즉, 제시된 표의 응답값이 클수록 독신으로 사는 것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문항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3.39 점으로, 서울청년은 결혼을 의무로 여기지 않는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남

- 각 연도의 응답값을 보면, 2019년 3.22점에서 2023년 3.46점으로 높아졌으며, 2022년을 제외하고 결혼에 대한 태도는 점차 독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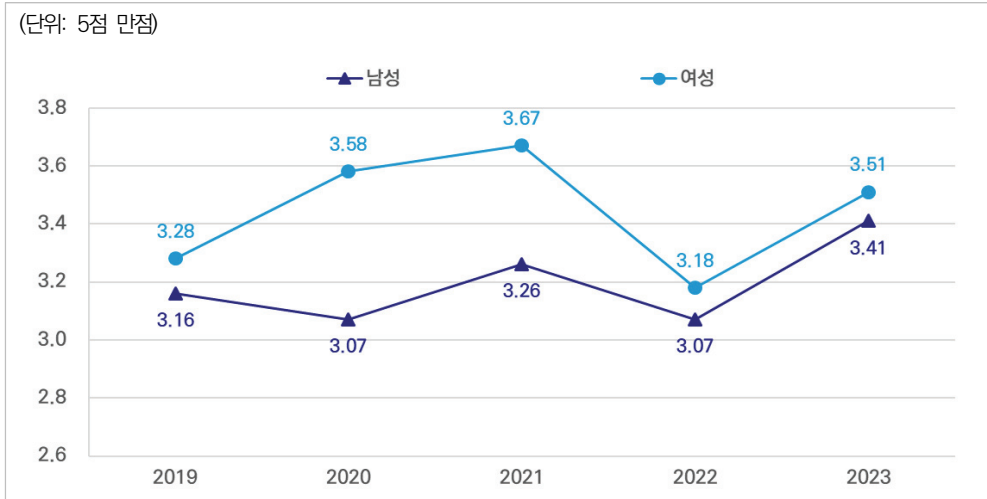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독신으로 사는 것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8]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 서울여성이 서울남성에 비해 독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 더 높아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의 성별차이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조사의 평균 값은 남녀 각각 3.31점, 3.48점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독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됨. 독신을 긍정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높은 경향은 2019년에서 2023까지 유지되어 왔음
 - 이러한 결과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직업 경력 꺾기의 변화,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의 현실에 대한 여성의 거부감과 관련이 있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통계청(2022)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부간 공평한 가사분담에 관한 인식은 증가추세이나(2012년 45.3%에서 2022년 64.7%로 증가) 실제로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2022년 20.5%로 나타났음. 요컨대 공평한 가사분담에 관한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외에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의 불이익 등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결혼보다는 독신을 긍정하는 양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이는 출산력 상승의 주요 전제 중 하나인 혼인을 상승에서 주목의 대상은 미혼 여성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여성 청년들이 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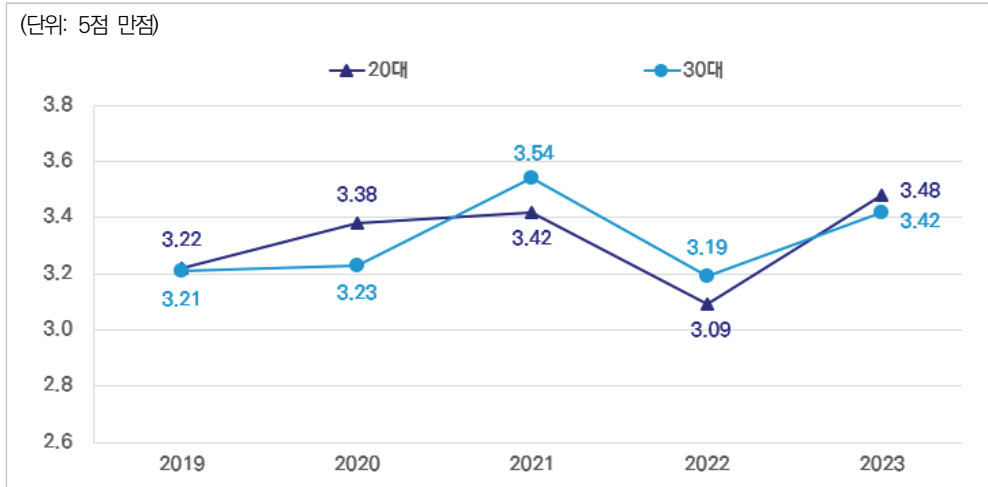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독신으로 사는 것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9]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성별)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평균적으로 20대가 30대에 비해 결혼을 의무로 여기지 않는 관점에 가까운 편이나, 세대별 차이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음
- 2019년부터 2023년 조사의 평균값은 20대의 경우 3.41점, 30대의 경우 3.37점으로, 전반적으로는 20대가 30대에 비해 결혼을 의무로 여기지 않는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의 세대별 차이는 일관성 있는 양상을 띠지 않았으며 매해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결혼지연으로 인한 평균초혼연령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의 평균초혼연령은 2002년 남녀 각각 29.8세, 27.0세에서 2022년 33.7세, 31.3세로 상승하였음. 특히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전국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임. 따라서 ‘결혼적령기’에 가까운 30대이지만 독신을 긍정하는 정도가 20대에 비해 점차 높게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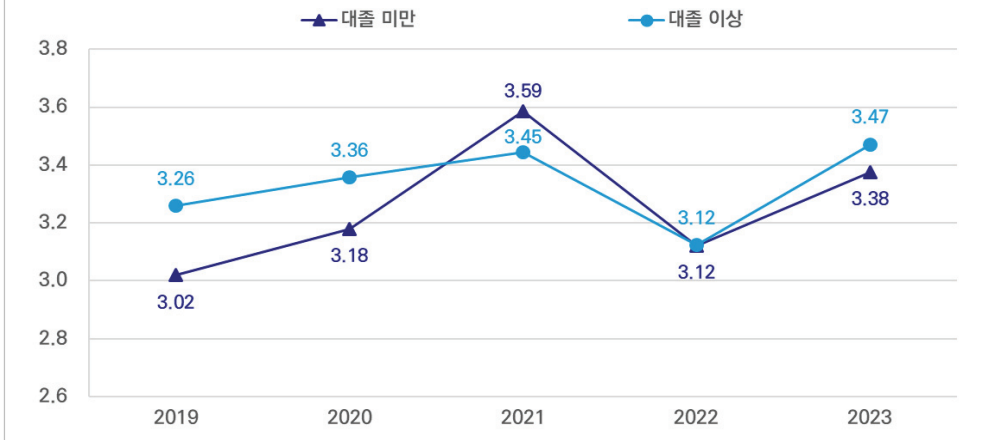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독신으로 사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10]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세대별)

- 전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들이 독신을 긍정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남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의 교육수준별 차이는 대졸 미만,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의 응답자 특성 문항에 대한 응답 중 안 받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대졸 미만, 전문대, 대학, 대학원까지는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음
 - 2019년부터 2023년 조사의 평균값은 대졸 미만, 대졸 이상에서 각각 3.30점, 3.41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들이 독신을 긍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졸 미만, 대졸 이상 집단의 연도별 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 2019년 각각 3.02점, 3.26점에서 2023년 3.38점, 3.47점으로 높아져 독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교육수준과 연령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학력이 높은 집단의 태도가 학력이 낮은 집단으로 퍼져나간다는 이론을 생각하면 결혼 그리고 독신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더욱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음

(단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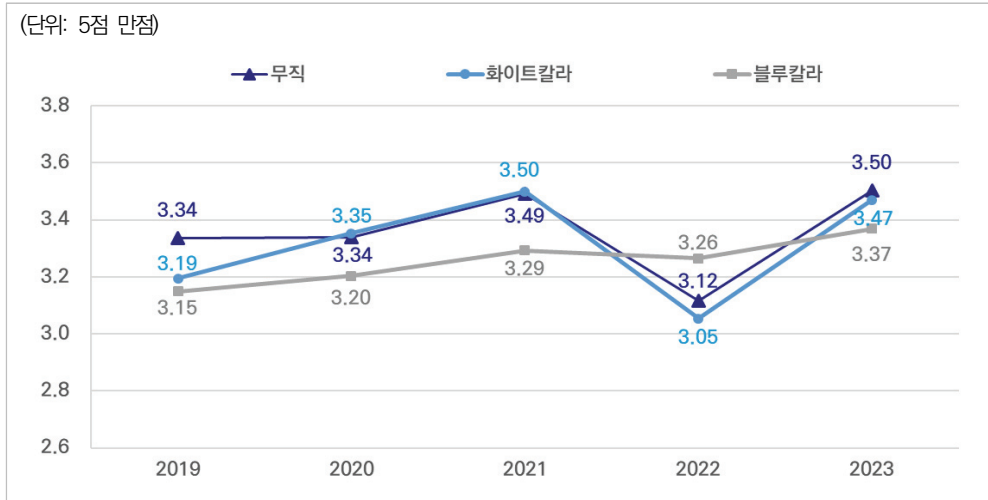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독신으로 사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11]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교육수준별)

-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순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의 직업별 차이는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직업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중 학생, 무직, 기타를 무직으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를 화이트칼라,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블루칼라로 구분하였음
 - 2019년부터 2023년 조사의 평균값은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각각 3.45점, 3.40점, 3.31점으로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순으로 독신을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의 연도별 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 2019년에 각각 3.34점, 3.19점, 3.15점에서 2023년 3.50점, 3.47점, 3.37점으로 독신의 긍정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짐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독신으로 사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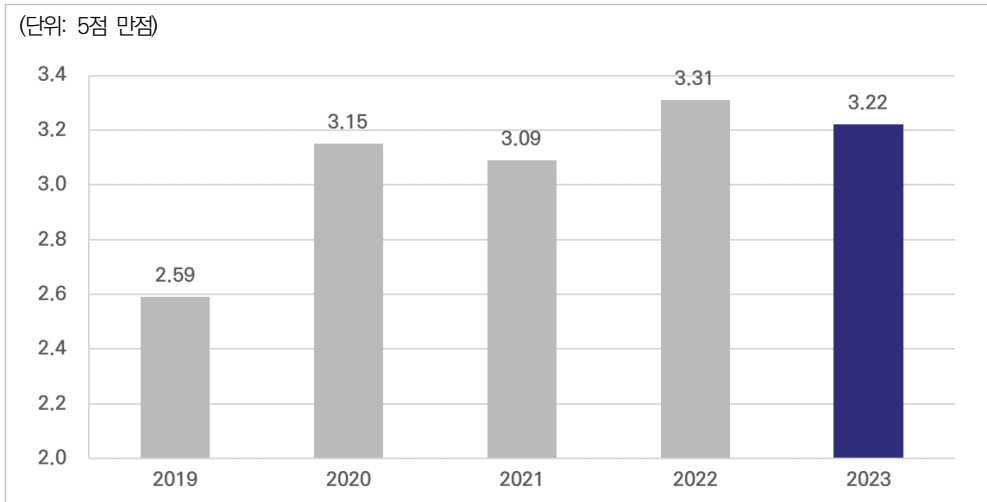
[그림 2-12]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직업별)

I 서울청년,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

서울청년은 동거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동의,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 점차 증가

- 서울청년은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동거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동의함
 -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는 다음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음. 2019년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동거를 결혼의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2023년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로 매우 반대 1점부터 매우찬성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따라서 제시된 표의 값이 높을수록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가까움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는 선형적인 증가세는 아니나 2019년(2.59점)과 2023년(3.22점) 조사의 응답을 비교하면 동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조사의 평균값은 3.15점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보통 이상임

- 일반적으로 동거는 결혼 확인 단계 또는 결혼 대체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한국은 아직 결혼 확인 단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음.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의견의 상승은 결혼이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갖는다고 파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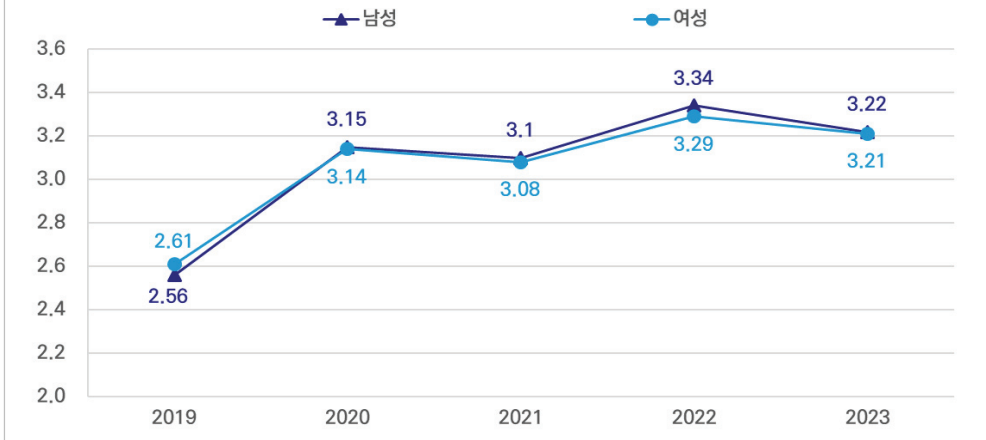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13]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

-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남녀 모두 동거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양상
 -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의 성별차이는 다음과 같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조사 응답의 평균값은 남녀 모두 3.15점으로 동일하였으며 2019년의 값은 각각 2.56점, 2.61점, 2023년의 값은 각각 3.22점, 3.21점으로 남녀 모두 동거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양상임.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녀 각각의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 2019년 2.56점, 2.61점, 2020년 3.15점, 3.14점, 2021년 3.10점, 3.08점, 2022년 3.34점, 3.29점, 2023년 3.22점, 3.21점. 동거에 대한 남녀의 태도 변화는 2019년, 2020년 여성이 동거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남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청년들은 점점 결혼문화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됨

(단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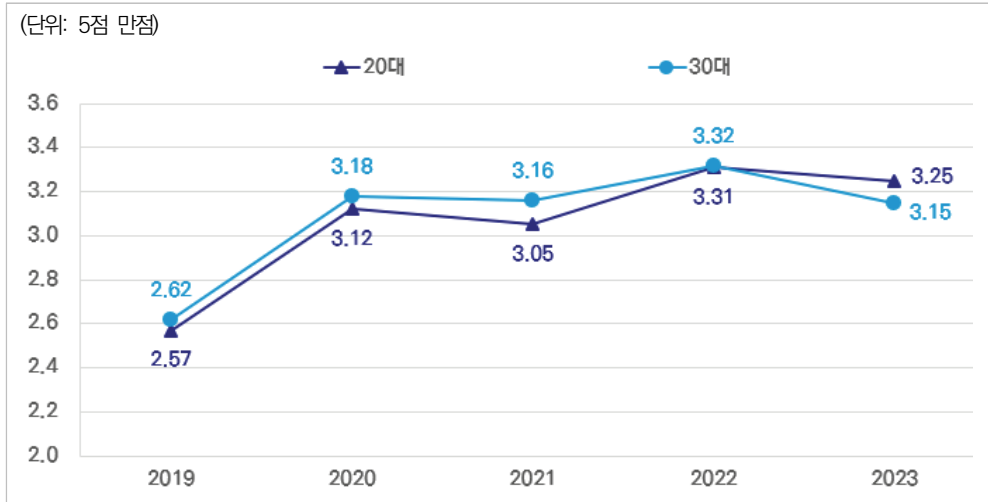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14]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성별)

- 20대가 30대에 비해 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의 세대별 차이는 다음과 같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값은 20대와 30대 각각 3.16점, 3.13점으로 20대가 30대에 비해 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2019년 응답값은 각각 2.57점, 2.62점, 2023년 응답값은 각각 3.25점, 3.15점으로 나타났음
 - 동거에 대한 태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30대가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20대가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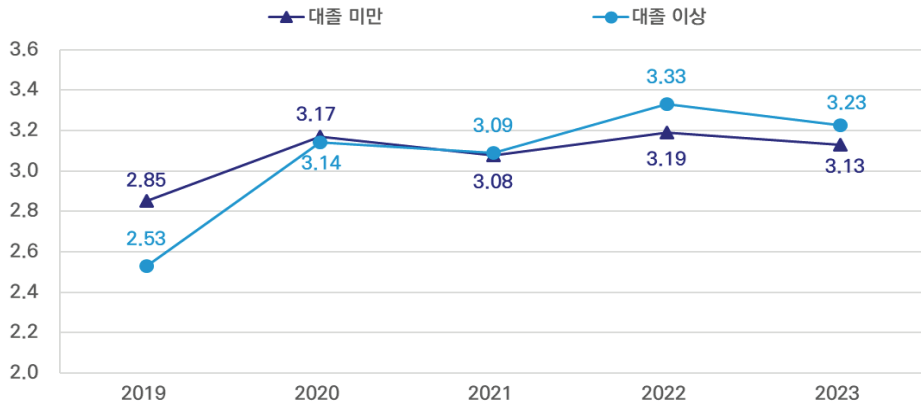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15]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세대별)

- 대졸 이상이 대졸 미만에 비해 동거에 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의 교육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의 평균값은 대졸 미만 3.10점, 대졸 이상 3.16점으로 나타났음
 - 동거에 대한 태도는 2019년, 2020년 대졸 미만이 대졸 이상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는 대졸 이상이 대졸 미만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음

(단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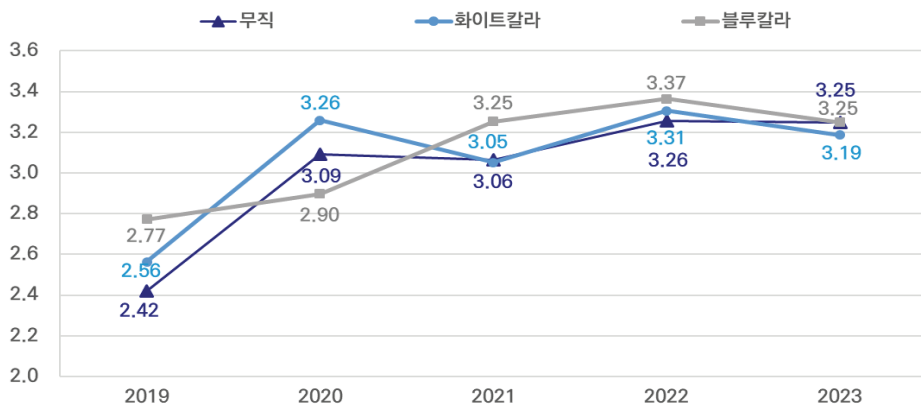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16]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교육수준별)

- 직업별 차이는 블루칼라, 무직, 화이트칼라 순으로 동거를 긍정하는 태도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거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은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각각 3.15점, 3.14점, 3.17점으로 전반적으로 블루칼라, 무직, 화이트칼라 순으로 동거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5점 만점)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2-17]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직업별)

-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성의 경우 직업유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음. 종속변수는 동거에 대한 태도이며, 독립변수는 세대, 교육수준, 직업(화이트칼라, 블루칼라)임. 기준변수는 세대의 경우 20대,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미만, 직업의 경우 무직임
 -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여성의 경우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경우 무직인 경우에 비해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적으로 무직과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화이트칼라 역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성들이 동거를 더 의미있는 선택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 가능함
 - 현재 한국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나라 중 유럽은 물론이고 동아시아권 나라들 중에서도 동거를 경험하는 청년세대들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앞으로 이러한 실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암시

[표 2-1] 동거에 대한 태도,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 | 남성 | | 여성 | |
|----------------------|------------|-------|------------|-------|
| | Coef. | S.E. | Coef. | S.E. |
| 세대(vs. 20대) | -0.085 | 0.119 | -0.082 | 0.091 |
| 교육수준(vs. 대졸 미만) | 0.226 | 0.152 | -0.103 | 0.119 |
| 화이트칼라(vs. 무직) | -0.052 | 0.148 | 0.118 | 0.113 |
| 블루칼라(vs. 무직) | -0.018 | 0.145 | 0.301* | 0.152 |
| Wald χ^2 | 100.53*** | | 85.33*** | |
| Pseudo R^2 | 0.0154 | | 0.0139 | |
| Log pseudolikelihood | -9232.3705 | | -8952.3135 | |
| N | 4,024 | | 4,382 | |

* p<0.05; ** p<0.01; *** p<0.001

자료: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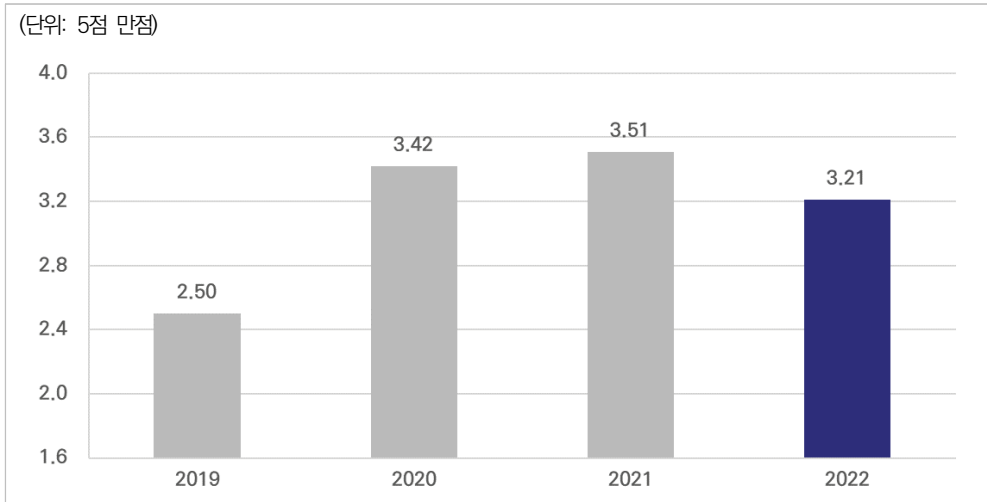
- 저출생 문제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 청년의 자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나 많은 인구학자들은 소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에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인 2.1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낮은 출산율의 주요 원인은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문화적 차원을 강조하는 제2 인구변천이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는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측면
- 서울서베이 자료를 통해 서울청년(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 미혼 대상)의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음

I 서울청년,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

서울청년은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반대하는 인식 점차 높아짐

-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음. 2019년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문항들은 매우 반대 1점부터 매우 찬성 5점까지 5점 척도의 응답구조를 가짐. 이러한 조사의 응답값을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제시된 표의 값이 클수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움
- 서울청년은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움
 -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2.50점에서 2022년은 3.21점으로 증가했음.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값은 3.18점으로 서울청년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보통 이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 앞서 합계출산율 등 관련 통계에서 드러났듯이 서울의 출산력 상황은 한국의 출산력을 대표하며 한국의 출산력 변화는 서울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서울 미혼청년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미래 한국의 출산력을 보여주는 전조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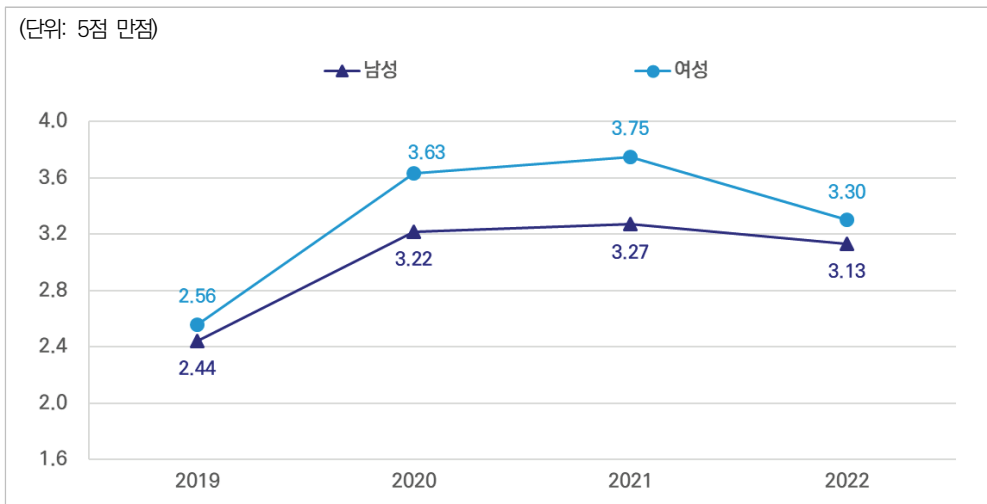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그림 2-18]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값은 남녀 각각 3.03점, 3.34점으로 나타났음.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이어졌음.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한 자녀양육 부담의 현실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인 불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 차이는 이후에 보게 될 세대, 교육, 직업 차이보다도 더욱 뚜렷하며 자녀를 낳는 여성이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는 한 서울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특히 최근 여성이 높은 교육 수준이나 향상된 취업 상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 못지않은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간 사이의 소위 협상력(bargaining power)에서 과거와는 다른 수준에 다다랐다고 보고 부인의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많은 성별 차이는 미래에도 여전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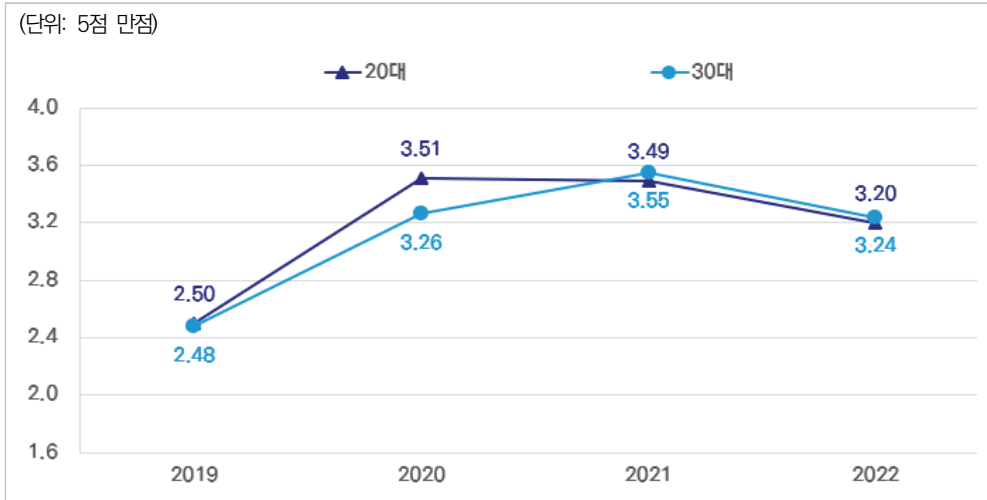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그림 2-19]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성별)

-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20대가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부정적이었으나, 점차 30대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남
- 자녀에 대한 태도변화의 세대별 차이는 다음과 같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값은 20대와 30대 각각 3.20점, 3.16점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0대에 비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됨

- 2019~2020년은 20대가, 2021~ 2022년은 30대가 좀 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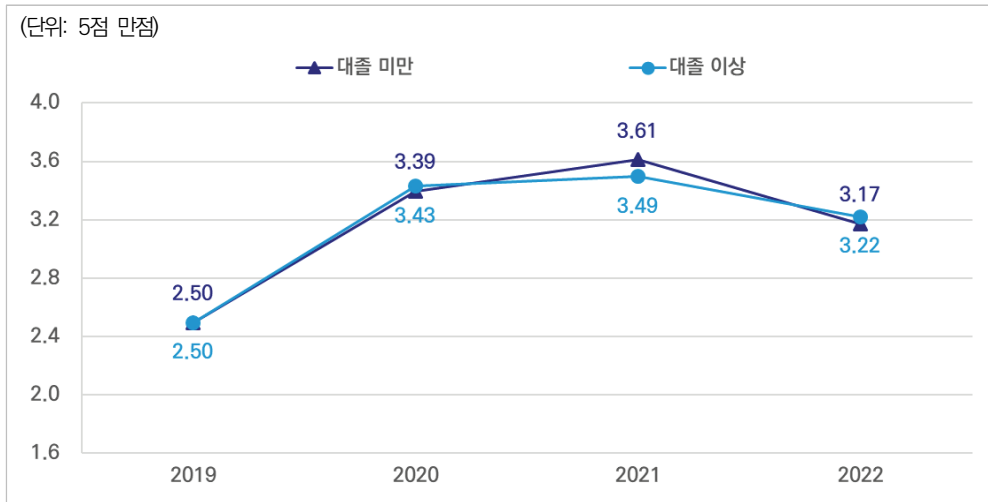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그림 2-20]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세대별)

- 교육수준별 차이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집단이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부정적,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
-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의 교육수준별 차이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값은 대졸 미만 3.17점, 대졸 이상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대졸 이상이 대졸 미만에 비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을 제외하고는 대졸 이상이 대졸 미만에 비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유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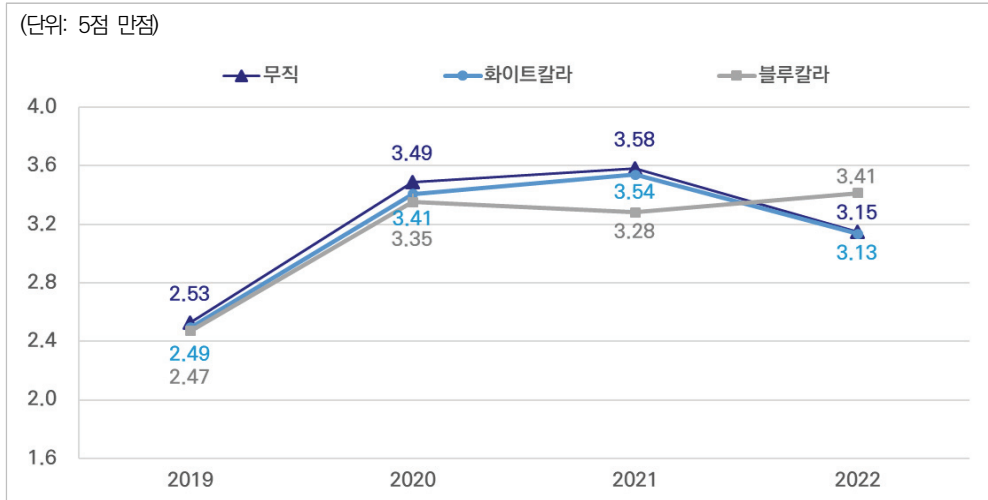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그림 2-21]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교육수준별)

- 자녀에 대한 태도의 직업별 차이에서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순으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의 평균값은 무직 3.23점, 화이트칼라 3.19점, 블루칼라 3.10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순으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직업별 차이의 연도별 경향성은 2022년을 제외하고는 무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순으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 : 제시된 표의 응답 값이 클수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19~2022

[그림 2-22]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직업별)

매력도시 서울의 공원·하천과 삶의 질

| | | |
|----|------------------|----|
| | 요약 | 58 |
| 01 | 서울시민의 수변공간 이용 실태 | 59 |
| 02 | 서울시민의 공원 이용 실태 | 74 |

요약

서울의 하천과 공원은 자연환경과 삶의 질 인프라 구축이 어우러진 매력 자원으로 시민 활용이 활발한 상황

서울시민이 지난 6개월 동안 하천을 방문한 경험률은 68.6%이고 공원 방문 경험률은 88.5%로 나타나 하천과 공원 모두 시민의 주요 이용 공간으로 나타남

서울시민의 하천 내 활동 만족도는 3.66점, 하천 접근성 만족도는 3.74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한 후속 조사 필요

하천의 방문 이용 경험이 한강 주변 자치구보다 지천 주변 자치구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한강 본류에 대한 방문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강에 존재하는 접근성 제약의 영향으로 보임

서울시민의 하천·공원 이용을 위한 접근성 향상과 이용 활동 경험 제고 노력이 필요, 높은 활동 경험률과 만족도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장소브랜딩의 소재로 활용 가능

하천 이용은 대체로 서울 강북의 자치구가 강세인 반면, 서남의 자치구가 약세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 자치구에 따른 차이도 존재

공원 이용은 시민들이 연령대, 교육수준에 따라서 선호하는 공원에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공원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동네 소규모 공원 이용률이 높은 데 비해, 주요 공원은 일부 시민의 이용에 한정되어 있고 방문하는 주요 공원 개수도 적어서 주요 공원이 시민에게 더 많이 이용되도록 홍보나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고연령대 집단의 경우 주요 공원 이용률이 낮아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주요 공원의 방문 테마 여행 기획 등도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추진해 볼 만할 것으로 판단됨

- 녹지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서 하천·공원과 같은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른바 “숲세권”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듯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확장되고 있는 어메니티인 하천·공원 이용에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추정
-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통해 하천·공원 이용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의 이상에 부합하는 어메니티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 서울시민의 수변공간 이용 경험

서울시민의 하천 방문 경험은 높으나 인구사회적 변인에 의해 다소 차이가 존재

- 서울시민의 월기준 하천 방문 경험률이 68.6%로 나타나, 서울시민 세 명 중 두명은 한 달에 한 번은 집 주변의 하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71.9%로 여성(65.6%)보다 방문 비율이 높음
 -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74.1%로 높았고, 주택 형태에서는 아파트가 72.8%로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이 74.1%로 높았음
 - 권역별로는 서북권이 76.2%로 가장 높고, 도심권(61.8%)과 서남권(63.8%)이 낮음
 - 연령대별로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20대 이하의 방문 비율이 64.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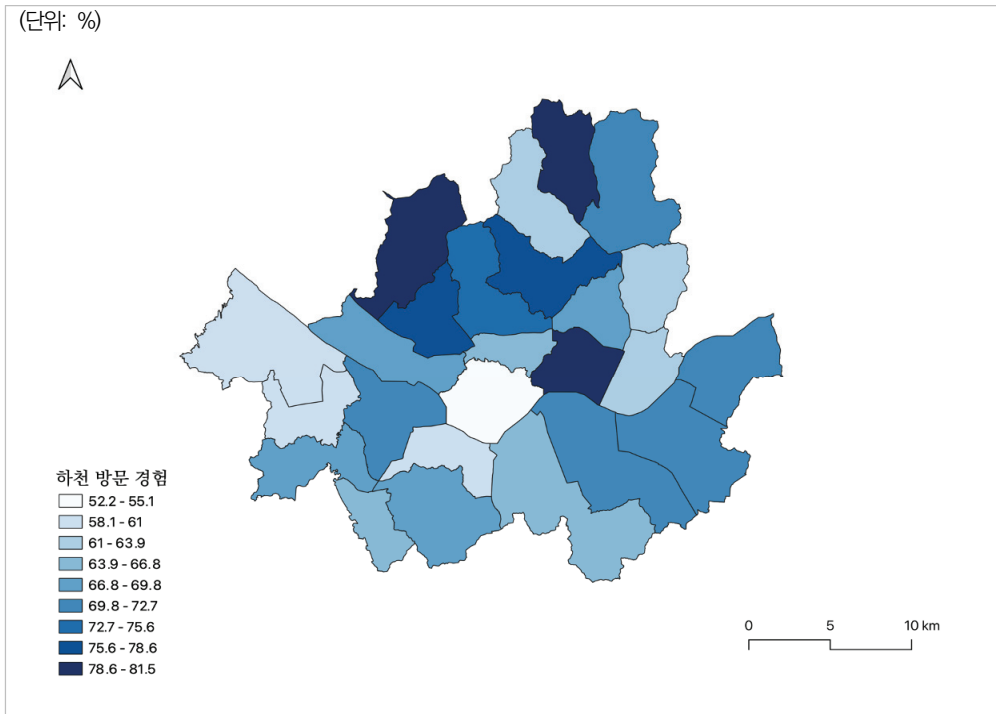
[표 3-1] 서울시민의 하천 방문 경험

| | | | | | (단위: %) |
|-------------|-------------------------|------|--------|-----|-------------------|
| 변수 | 구분 | 방문함 | 카이제곱 | 자유도 |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
| 성별 | 남성 | 71.9 | 22.673 | 1 | <.001 |
| | 여성 | 65.6 | | | |
| 연령 | 20대 이하 | 64.8 | 9.375 | 4 | 0.052 |
| | 30대 | 69.2 | | | |
| | 40대 | 69.8 | | | |
| | 50대 | 70.2 | | | |
| | 60세 이상 | 69.5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65.3 | 21.449 | 3 | <.001 |
| | 고졸 이하 | 63.9 | | | |
| | 대졸 이하 | 69.7 | | | |
| | 대학원 이상 | 74.1 |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72.8 | 31.941 | 1 | <.001 |
| | 단독/다세대/연립/ 기타 | 65.3 |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67.1 | 3.39 | 1 | 0.066 |
| | 다인 가구 | 69.6 |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71.4 | 16.956 | 1 | <.001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65.9 |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74.1 | 14.553 | 3 | 0.002 |
| | 화이트칼라 | 67.3 | | | |
| | 블루칼라 | 65.9 | | | |
| | 기타 | 69.0 | | | |
| 권역별 | 도심권 | 61.8 | 42.022 | 4 | <.001 |
| | 동북권 | 70.6 | | | |
| | 서북권 | 76.2 | | | |
| | 서남권 | 63.8 | | | |
| | 동남권 | 70.0 | | |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67.9 | 0.038 | 1 | 0.845 |
| | 장애인 아님 | 68.6 | | | |
| 전체 | | 68.6 |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 서울시민의 자치구별 하천 방문 경험은 자치구별로 보았을 때 도봉구(81.5%), 은평구(80.7%), 성동구(79.5%), 서대문구(77.2%), 성북구(75.7%)가 75%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강서구(59.9%), 양천구(59.5%), 동작구(59.4%), 용산구(52.2%)가 60%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대체로 강북의 자치구에서 하천 방문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동구 외에는 한강 주변의 자치구에서 하천 방문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하천 방문 경험 비율은 지천 방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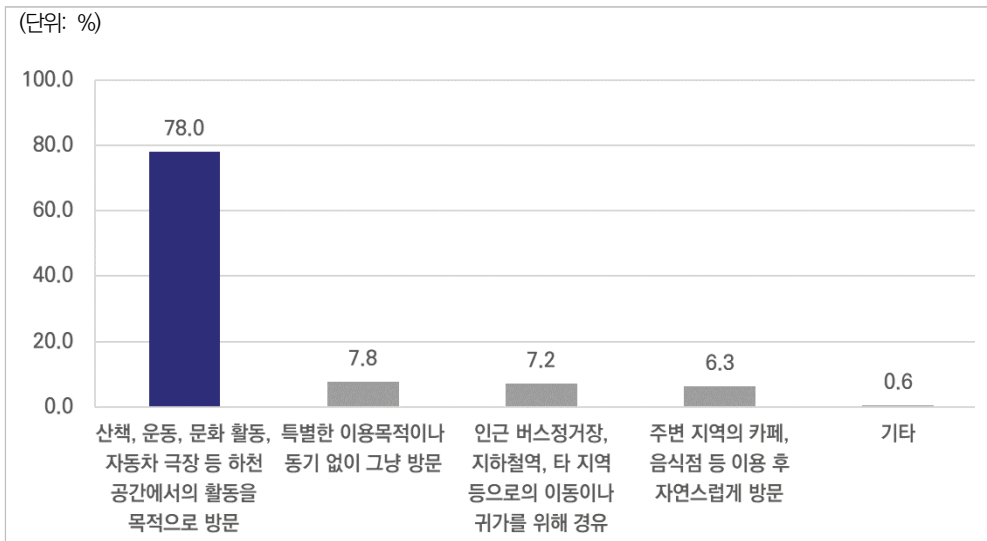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3-1] 자치구별 하천 방문 경험

서울시민의 하천 방문 목적과 하천에서 하는 주요 활동

- 서울시민의 하천 방문 목적은 하천 공간에서의 활동 목적(산책, 운동, 문화활동, 자동차극장 등)의 방문이 78.0%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특별한 이용목적이나 동기 없는 방문(7.8%), 인근 버스 정거장, 지하철역, 타 지역 등으로 이동이나 귀가를 위해 경유(7.2%), 주변 지역의 카페, 음식점 등 이용 후 방문(6.3%) 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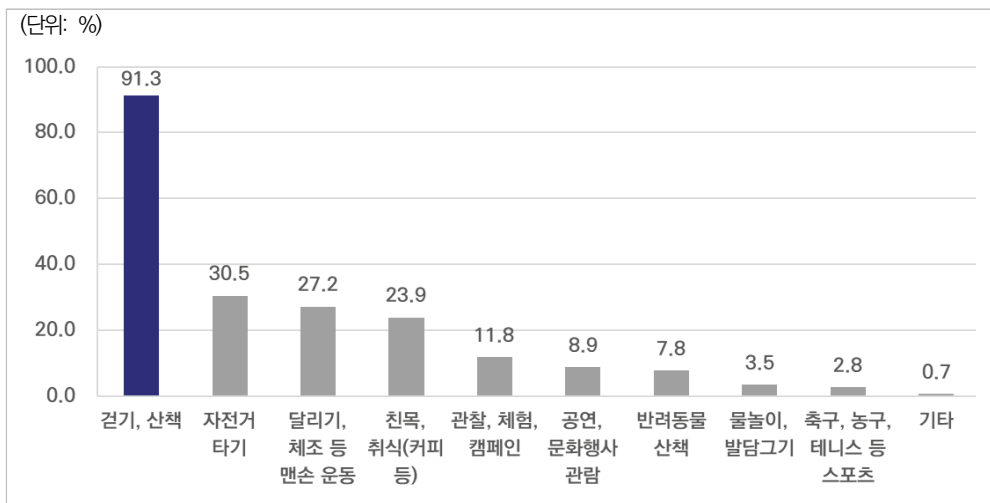
- 무목적성 방문이나 이동 관련 방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다양한 여가활동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천이 시민의 주요 여가공간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3-2] 서울시민의 하천 방문 목적

- 서울시민이 하천에서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한 다중응답을 합산한 결과, 건강 관련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친교나 반려견, 문화생활 등 다양한 일상 여가 활동이 나타남
 - 건강 관련 활동으로는 걷기나 산책이 9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전거 타기(30.5%), 달리기, 체조 등 맨손 운동(27.3%), 물놀이, 발담그기(3.5%), 축구, 농구, 테니스 등 스포츠(2.8%)로 나타남
 - 건강 관련 이외 활동으로는 친목이나 취식이 23.9%로 비교적 높았고, 관찰, 체험 캠페인(11.8%), 공연, 문화행사 관람(8.9%), 반려동물 산책(7.8%)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이 하천에서 이루어짐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3-3] 서울시민이 하천에서 하는 주요 활동(다중응답)

Ⅰ 서울시민의 수변공간 만족도

서울시민의 하천 만족도는 하천 이용 및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3.66점, 하천 접근성 만족도가 3.7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

- 서울시민의 하천 이용 및 하천 내 활동 만족도는 “가장 만족”을 5점, “가장 불만족”을 1점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66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임
-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분류, 권역별에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4점으로 가장 만족한 반면, 30대 이하가 3.59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가 3.77점으로 가장 만족했으며 그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3.73점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3.71점, 도심권과 서북권이 3.70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서남권이 3.5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표 3-2] 서울시민의 하천 이용 및 하천 내 활동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T/F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성 | 3.67 | 0.811 | 0.432 | 0.666 |
| | 여성 | 3.66 | 0.815 | | |
| 연령 | 20대 이하 | 3.63 | 0.851 | 4.016 | 0.003 |
| | 30대 | 3.59 | 0.806 | | |
| | 40대 | 3.64 | 0.778 | | |
| | 50대 | 3.67 | 0.768 | | |
| | 60세 이상 | 3.74 | 0.832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3.77 | 0.798 | 2.941 | 0.032 |
| | 고졸 이하 | 3.60 | 0.817 | | |
| | 대졸 이하 | 3.67 | 0.816 | | |
| | 대학원 이상 | 3.73 | 0.781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3.66 | 0.822 | -0.512 | 0.609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3.67 | 0.805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3.65 | 0.835 | -0.612 | 0.541 |
| | 다인 가구 | 3.67 | 0.799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3.67 | 0.792 | 0.628 | 0.53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3.65 | 0.834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3.67 | 0.795 | 2.688 | 0.045 |
| | 화이트칼라 | 3.61 | 0.815 | | |
| | 블루칼라 | 3.67 | 0.803 | | |
| | 기타 | 3.71 | 0.822 | | |
| 권역별 | 도심권 | 3.70 | 0.78 | 3.226 | 0.012 |
| | 동북권 | 3.71 | 0.838 | | |
| | 서북권 | 3.70 | 0.759 | | |
| | 서남권 | 3.59 | 0.794 | | |
| | 동남권 | 3.67 | 0.834 | |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3.59 | 0.808 | -0.838 | 0.402 |
| | 장애인 아님 | 3.67 | 0.813 | | |
| | 전체 | 3.66 | 0.813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3,431)

- 서울시민의 하천 접근성 만족도는 “가장 만족”을 5점, “가장 불만족”을 1점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3.74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하천 내 활동 만족도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교육수준, 주택형태, 가구형태, 직업분류, 권역별 차이를 보였음
-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3.79점, 가구형태는 다인 가구가 3.76점으로 높았으며, 직업분류는 기타 3.78점, 관리전문직 3.76점으로 높았음

-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3.84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3.62)과 도심권(3.67)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표 3-3] 서울시민의 하천 접근성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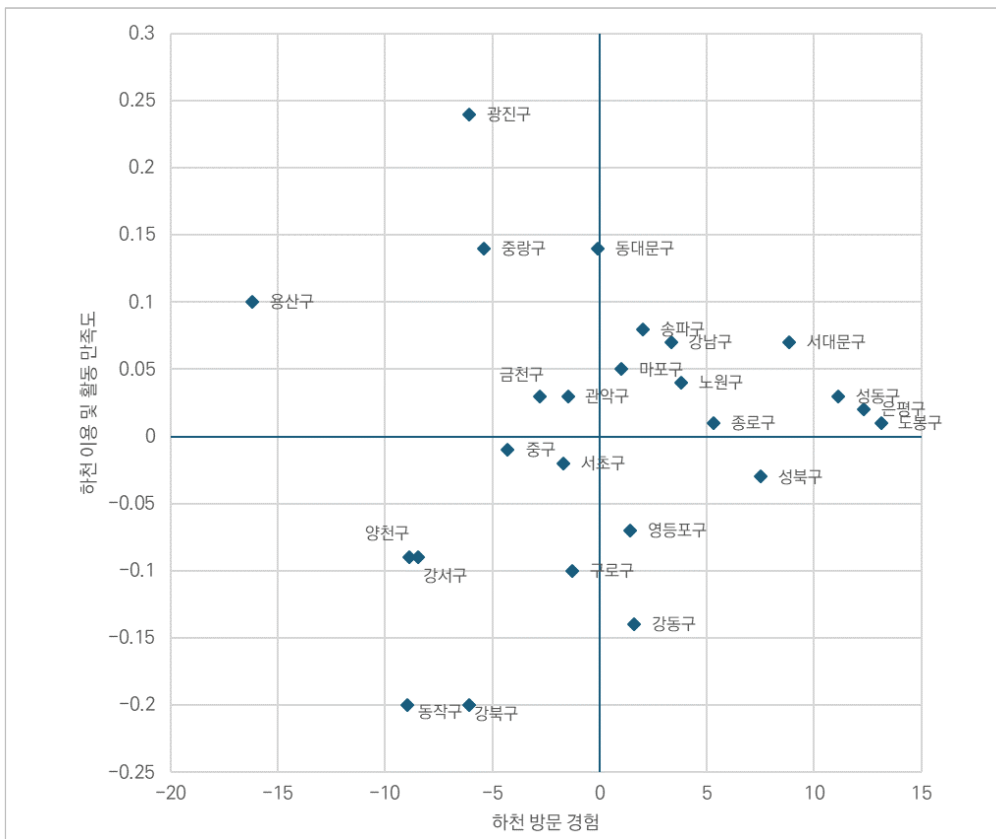
(단위: 5점 만점)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T/F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성 | 3.73 | 0.906 | -0.169 | 0.866 |
| | 여성 | 3.74 | 0.873 | | |
| 연령 | 20대 이하 | 3.73 | 0.936 | 0.779 | 0.538 |
| | 30대 | 3.69 | 0.926 | | |
| | 40대 | 3.73 | 0.855 | | |
| | 50대 | 3.75 | 0.83 | | |
| | 60세 이상 | 3.77 | 0.892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3.75 | 0.869 | 4.383 | 0.004 |
| | 고졸 이하 | 3.63 | 0.884 | | |
| | 대졸 이하 | 3.76 | 0.89 | | |
| | 대학원 이상 | 3.81 | 0.894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3.79 | 0.898 | 3.126 | 0.002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3.69 | 0.88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3.69 | 0.913 | -2.272 | 0.023 |
| | 다인 가구 | 3.76 | 0.874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3.76 | 0.863 | 1.528 | 0.127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3.71 | 0.916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3.76 | 0.858 | 2.628 | 0.049 |
| | 화이트칼라 | 3.71 | 0.894 | | |
| | 블루칼라 | 3.67 | 0.884 | | |
| | 기타 | 3.78 | 0.9 | | |
| 권역별 | 도심권 | 3.67 | 0.858 | 7.78 | <.001 |
| | 동북권 | 3.84 | 0.896 | | |
| | 서북권 | 3.74 | 0.846 | | |
| | 서남권 | 3.62 | 0.897 | | |
| | 동남권 | 3.75 | 0.888 | |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3.58 | 0.868 | -1.722 | 0.085 |
| | 장애인 아님 | 3.74 | 0.89 | | |
| 전체 | | 3.74 | 0.89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3,431)

- 자치구별 하천 방문 경험과 하천 이용 및 하천 내 활동 만족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천 방문 경험과 하천 이용 및 하천 내 활동 만족도 평균을 0점으로 하여 4분면에 위치시킨 결과, 모두 평균 이상인 1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노원구, 종로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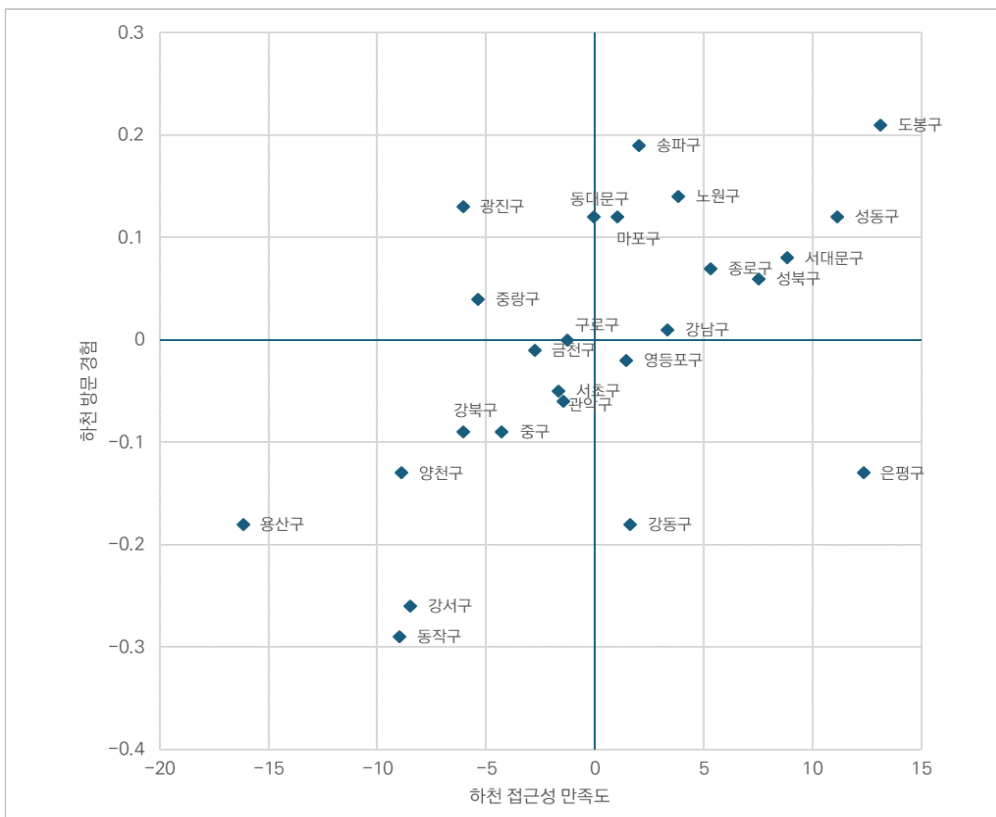
- 하천 방문 경험과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모두 평균 이하인 3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동작구, 강북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중구였음
- 하천 방문 경험은 평균 이상이나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낮은 자치구는 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였으며, 하천 방문 경험은 낮으나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광진구, 용산구, 중랑구, 금천구, 관악구, 동대문구였음
- 강북의 자치구들이 대체로 하천 방문 경험과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으나, 강북구의 경우 하천 방문 경험과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모두 평균 이하였고, 성북구의 경우 하천 방문 경험은 평균 이상이나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평균 이하였음
- 인접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한강 접근성에서 별 차이가 없으나 양재천, 탄천 등의 접근성이 좋은 강남구의 방문 경험과 만족도가 모두 높은 반면, 서초구는 방문 경험과 만족도가 모두 낮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3,431)

[그림 3-4] 자치구별 하천 방문 경험과 하천 이용 및 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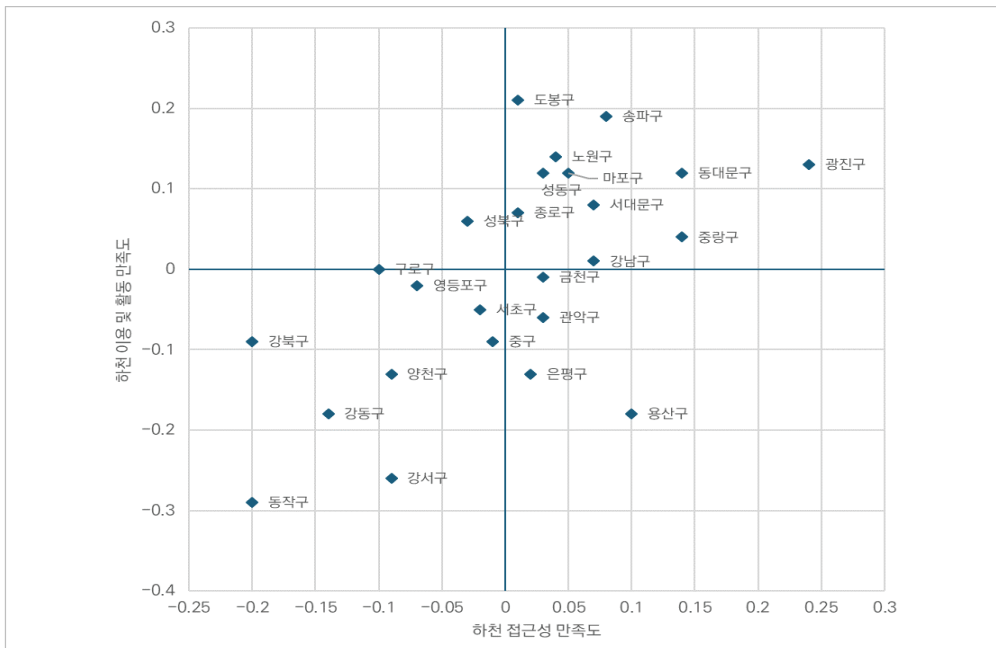
- 자치구별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방문 경험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방문 경험의 평균을 0점으로 하여 4분면에 자치구를 위치시킴. 하천의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방문 경험이 모두 평균 이상인 1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도봉구, 성동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마포구였으며 그 중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방문 경험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였음
 -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방문 경험이 모두 평균 이하인 3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용산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중구, 관악구, 서초구, 금천구였음
 - 하천 접근성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지만 하천 방문 경험은 평균 이하인 자치구는 은평구, 강동구, 영등포구였으며, 하천 접근성 만족도는 평균 이하이지만 하천 방문 경험이 높은 자치구는 광진구와 중랑구임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3,431)

[그림 3-5] 자치구별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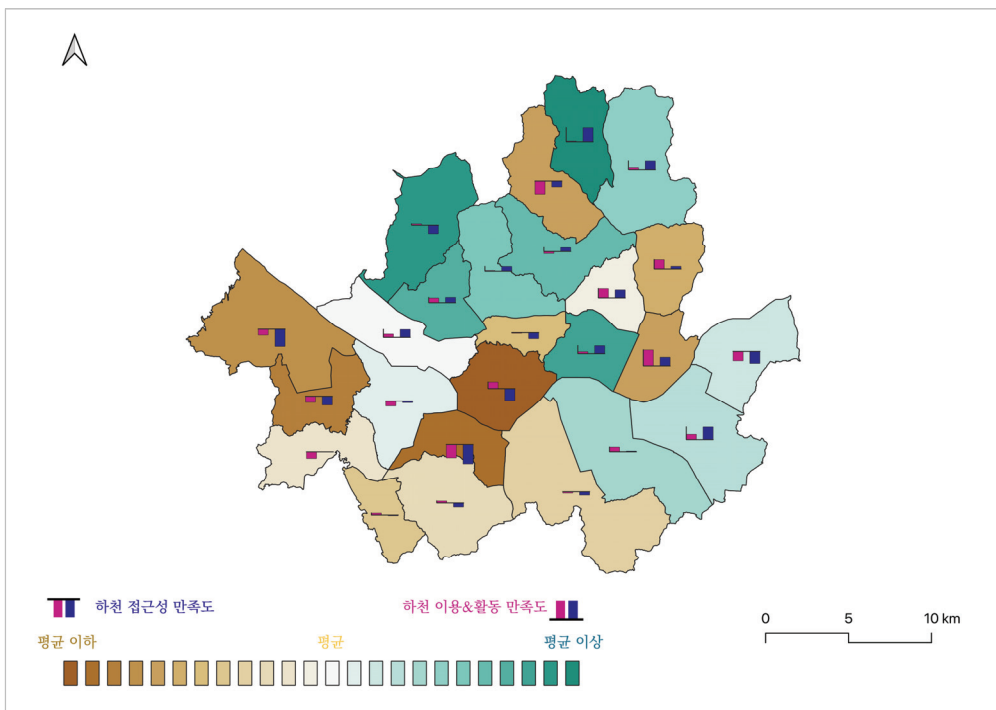
- 자치구별 하천 내 활동 만족도와 접근성 만족도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이용 및 활동 만족도의 평균을 0점으로 하여 4분면에 위치시킨 결과, 만족도가 모두 평균 이상인 1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광진구, 동대문구, 송파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서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강남구임
 -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모두 평균 이하인 3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동작구,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중구이며 동작구가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천 접근성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나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평균 이하인 자치구는 용산구, 금천구, 관악구, 은평구였으며, 하천 접근성 만족도는 평균 이하이나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높은 자치구는 성북구였음
 - 강북에 위치한 자치구들이 강북구 외 대부분 하천 접근성과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평균 보다 높은 반면, 서남 지역에 위치한 자치구들 다수에서 하천 접근성과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3,431)

[그림 3-6] 자치구별 하천 이용 및 활동 만족도와 접근성 만족도

- 자치구별 하천 방문 경험과 하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서남권이 다른 권역에 비하여 하천 방문 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하천 내 활동 만족도와 접근성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천 방문 경험이 높은 자치구들은 대체로 하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자치구도 존재
 - 동북권의 도봉구(81.5%)와 서북권의 은평구(80.7%)가 하천 방문 경험이 가장 높은 자치구였으며, 도봉구의 경우 하천 내 활동 만족도와 하천 접근성 만족도가 모두 평균 이상이었던 반면, 은평구는 하천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나타남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3,431)

[그림 3-7] 자치구별 하천 방문 경험과 하천 만족도(이용 및 활동/접근성)

**서울시민 중 일주일에 1회 이상 하천을 방문하는 주간방문자는 하천 방문자의 33.4%,
하천 이용 및 활동 만족도와 접근성 만족도가 하천 방문자 평균보다 높은 수준**

- 하천 주간방문자는 성별로는 여성(31.1%)보다 남성(35.3%)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2.1%)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음. 주택형태는 아파트(35.2%), 권역별로는 동북권(36.7%)의 하천 주간방문자가 많았음

[표 3-4] 하천 주간방문자 특성

| (단위: %) | | | | | | |
|-------------|-----------------------------|---------|--------|--------|-----|-------------------|
| 변수 | 구분 | 비주간 방문자 | 주간 방문자 | 카이제곱 | 자유도 |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
| 성별 | 남성 | 64.7 | 35.3 | 6.921 | 1 | 0.009 |
| | 여성 | 68.9 | 31.1 | | | |
| 연령 | 20대 이하 | 73.0 | 27.0 | 51.383 | 4 | 〈.001 |
| | 30대 | 67.9 | 32.1 | | | |
| | 40대 | 72.5 | 27.5 | | | |
| | 50대 | 68.5 | 31.5 | | | |
| | 60세 이상 | 57.9 | 42.1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57.2 | 42.8 | 6.907 | 3 | 0.075 |
| | 고졸 이하 | 68.4 | 31.6 | | | |
| | 대졸 이하 | 67.0 | 33.0 | | | |
| | 대학원 이상 | 67.5 | 32.5 |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64.8 | 35.2 | 6.293 | 1 | 0.012 |
| | 단독/다세대/ 연립/기타 | 68.8 | 31.2 |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67.3 | 32.7 | 0.076 | 1 | 0.783 |
| | 다인 가구 | 66.8 | 33.2 |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66.6 | 33.4 | 0.292 | 1 | 0.589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 /기타) | 67.5 | 32.5 |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64.9 | 35.1 | 15.34 | 3 | 0.002 |
| | 화이트칼라 | 70.4 | 29.6 | | | |
| | 블루칼라 | 69.1 | 30.9 | | | |
| | 기타 | 63.4 | 36.6 | | | |
| 권역별 | 도심권 | 74.3 | 25.7 | 14.671 | 4 | 0.005 |
| | 동북권 | 63.3 | 36.7 | | | |
| | 서북권 | 67.0 | 33.0 | | | |
| | 서남권 | 68.8 | 31.2 | | | |
| | 동남권 | 67.4 | 32.6 | | |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69.8 | 30.2 | 0.319 | 1 | 0.572 |
| | 장애인 아님 | 66.9 | 33.1 | | | |
| | 전체 | 66.6 | 33.4 |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3,431)

- 하천 주간방문자의 하천 이용 및 하천 내 활동 만족도는 3.86점으로 하천 방문자의 평균 만족도(3.66점)보다 높은 수준임
- 인구사회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권역별로는 서남권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표 3-5] 하천 주간방문자의 하천 이용 및 활동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T/F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성 | 3.85 | 0.802 | -0.321 | 0.748 |
| | 여성 | 3.87 | 0.826 | | |
| 연령 | 20대 이하 | 3.91 | 0.825 | 2.351 | 0.052 |
| | 30대 | 3.72 | 0.781 | | |
| | 40대 | 3.86 | 0.769 | | |
| | 50대 | 3.85 | 0.831 | | |
| | 60세 이상 | 3.92 | 0.838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3.95 | 0.818 | 1.418 | 0.236 |
| | 고졸 이하 | 3.77 | 0.819 | | |
| | 대졸 이하 | 3.87 | 0.82 | | |
| | 대학원 이상 | 3.91 | 0.764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3.87 | 0.797 | 0.613 | 0.54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3.84 | 0.831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3.8 | 0.849 | -1.39 | 0.165 |
| | 다인 가구 | 3.88 | 0.802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3.87 | 0.802 | 0.543 | 0.588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3.84 | 0.835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3.85 | 0.765 | 0.573 | 0.633 |
| | 화이트칼라 | 3.82 | 0.8 | | |
| | 블루칼라 | 3.86 | 0.814 | | |
| | 기타 | 3.89 | 0.847 | | |
| 권역별 | 도심권 | 3.87 | 0.736 | 1.398 | 0.233 |
| | 동북권 | 3.91 | 0.802 | | |
| | 서북권 | 3.87 | 0.725 | | |
| | 서남권 | 3.77 | 0.788 | | |
| | 동남권 | 3.88 | 0.944 | |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 3.77 | 0.765 | -0.566 | 0.571 |
| 여부 | 장애인 아님 | 3.86 | 0.816 | | |
| 전체 | | 3.86 | 0.814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1,146)

- 하천 주간방문자의 하천 접근성 만족도 4.04로 하천 방문자 평균(3.74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만족도의 차이가 교육수준, 주택형태, 직업분류, 권역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확인됨
-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이상(4.13점)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3.90점)가 가장 낮음
- 주택형태에서는 아파트(4.11점)가 다른 주택형태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기타가 4.07점으로 다른 직군보다 높았음
- 권역별로는 동북권의 만족도가 4.1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서남권이 3.91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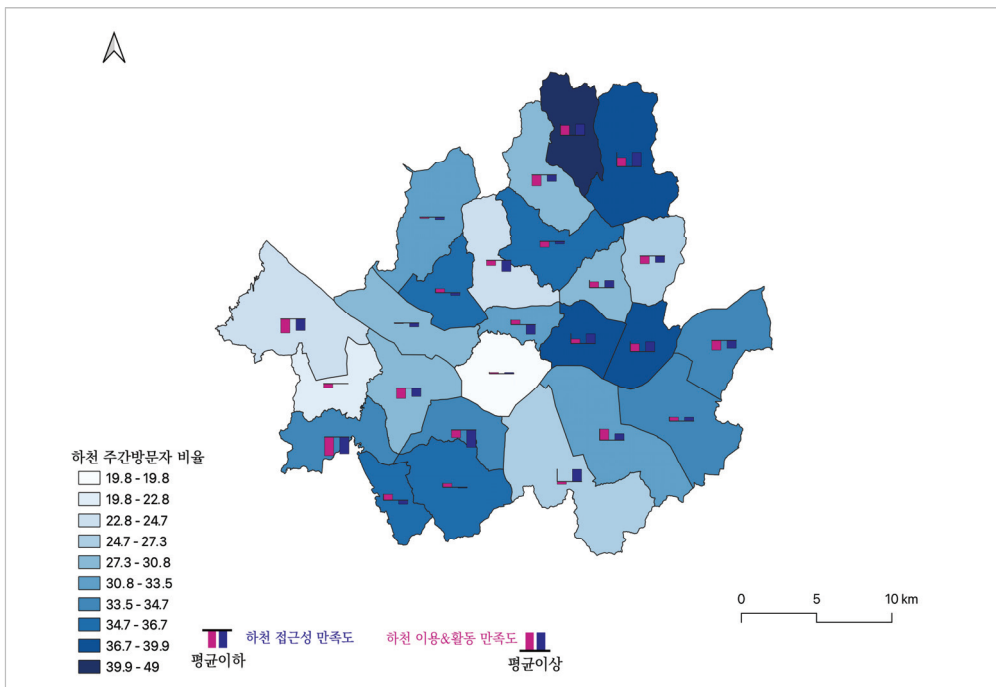
[표 3-6] 하천 주간방문자의 하천 접근성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T/F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성 | 4.01 | 0.816 | -1.026 | 0.305 |
| | 여성 | 4.06 | 0.783 | | |
| 연령 | 20대 이하 | 4.13 | 0.82 | 0.707 | 0.587 |
| | 30대 | 4.02 | 0.787 | | |
| | 40대 | 4.09 | 0.731 | | |
| | 50대 | 4.01 | 0.767 | | |
| | 60세 이상 | 4.01 | 0.858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3.97 | 0.868 | 3.344 | 0.019 |
| | 고졸 이하 | 3.90 | 0.837 | | |
| | 대졸 이하 | 4.07 | 0.789 | | |
| | 대학원 이상 | 4.13 | 0.732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4.11 | 0.766 | 2.921 | 0.004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3.97 | 0.826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4.01 | 0.797 | -0.638 | 0.523 |
| | 다인 가구 | 4.05 | 0.801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4.02 | 0.804 | -0.826 | 0.409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4.06 | 0.792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4.05 | 0.818 | 3.213 | 0.022 |
| | 화이트칼라 | 4.07 | 0.749 | | |
| | 블루칼라 | 3.88 | 0.863 | | |
| | 기타 | 4.07 | 0.795 | | |
| 권역별 | 도심권 | 3.93 | 0.841 | 4.161 | 0.002 |
| | 동북권 | 4.13 | 0.768 | | |
| | 서북권 | 3.99 | 0.732 | | |
| | 서남권 | 3.91 | 0.781 | | |
| | 동남권 | 4.09 | 0.89 | |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3.77 | 0.815 | -1.726 | 0.085 |
| | 장애인 아님 | 4.04 | 0.799 | | |
| 전체 | | 4.04 | 0.8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1,146)

- 하천 주간방문자 비율과 하천 만족도(이용 및 활동/접근성)가 높은 지역은 동북권의 도봉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이며, 하천 주간 방문자의 비율과 하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서남권의 양천구, 강서구와 도심권의 종로구임
- 하천 주간 방문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49%)이며, 성동구(39.9%), 노원구(39.5%), 광진구(38.1%), 금천구(36.7%) 순이었음
- 하천 주간 방문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용산구(19.8%)였으며, 양천구(22.8%), 강서구(23.8%), 종로구(24.7%) 순으로 낮은 자치구임
- 서남권의 구로구, 동작구와 동북권의 성북구, 동남권의 강동구와 같은 지역은 하천 주간 방문자가 평균 이상이지만 하천 접근성 만족도와 하천 내 활동 만족도가 낮은 지역임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1,146)

[그림 3-8] 자치구별 하천 주간방문자 비율과 하천 만족도(이용 및 활동/접근성)

I 서울시민의 공원 방문 경험

서울시민의 공원 방문 경험은 하천 방문 경험보다 높은 수준, 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공원을 방문하며 그 외 여가활동, 건강증진, 자연감상 등의 목적으로 이용

- 서울시민의 공원 방문 경험률은 88.5%로 공원 방문 경험은 하천 방문 경험(6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90%가 넘는 경험률을 보이기도 함
- 성별로는 여성이 89.7%로 남성(87.3%)보다 방문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로는 40대의 공원 방문 경험 비율이 91.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가 86.8%로 가장 낮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94.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이하가 80.8%로 가장 낮았음
- 주택형태는 아파트(92.4%), 가구형태에서는 다인 가구(89.4%),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89.9%), 직업별로는 관리 전문직(94.0%)이 공원 방문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북권이 91.4%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85.0%)이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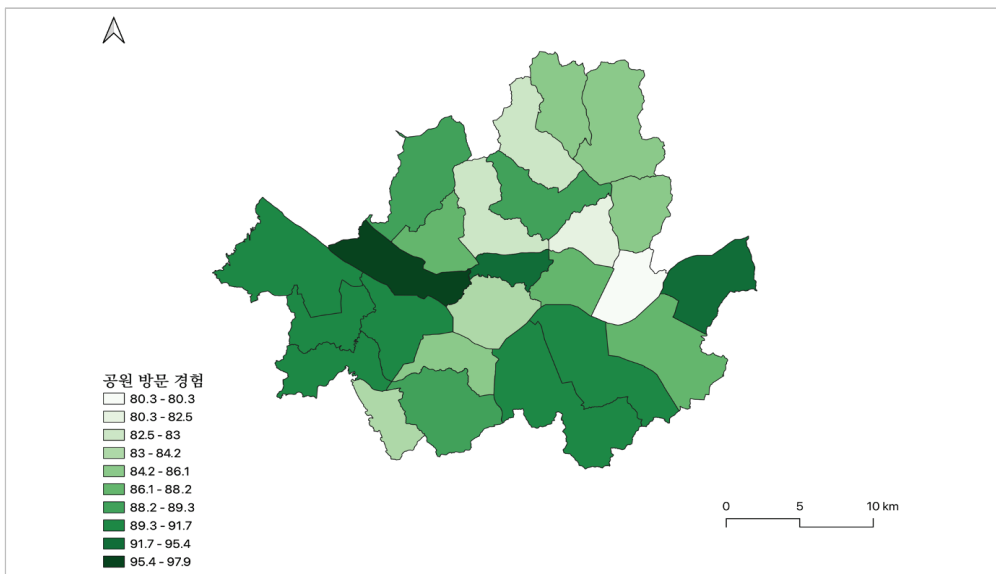
[표 3-7] 서울시민의 공원 방문 경험

| | | | | | (단위: %) |
|------|--------|------|--------|-----|-------------------|
| 변수 | 구분 | 방문함 | 카이제곱 | 자유도 |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
| 성별 | 남성 | 87.3 | 7.402 | 1 | 0.007 |
| | 여성 | 89.7 | | | |
| 연령 | 20대 이하 | 86.8 | 13.127 | 4 | 0.011 |
| | 30대 | 89.8 | | | |
| | 40대 | 91.1 | | | |
| | 50대 | 89.3 | | | |
| | 60세 이상 | 87.1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80.8 | 57.469 | 3 | 〈.001 |
| | 고졸 이하 | 84.1 | | | |
| | 대졸 이하 | 89.7 | | | |
| | 대학원 이상 | 94.7 | | | |

| | | | |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92.4 | 55.589 | 1 | <.001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85.6 |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87.2 | 5.619 | 1 | 0.018 |
| | 다인 가구 | 89.4 |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89.9 | 8.192 | 1 | 0.004 |
| | 배우자 없음 | 87.3 | | | |
| | (미혼/이혼/사별/기타) | |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94.0 | 28.767 | 3 | <.001 |
| | 화이트칼라 | 87.8 | | | |
| | 블루칼라 | 85.7 | | | |
| | 기타 | 88.5 | | | |
| | | | | | |
| 권역별 | 도심권 | 86.6 | 33.493 | 4 | <.001 |
| | 동북권 | 85.0 | | | |
| | 서북권 | 91.4 | | | |
| | 서남권 | 89.6 | | | |
| | 동남권 | 91.1 | | | |
| | | | | |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 90.7 | 0.671 | 1 | 0.413 |
| 여부 | 장애인 아님 | 88.5 | | | |
| | 전체 | 88.5 |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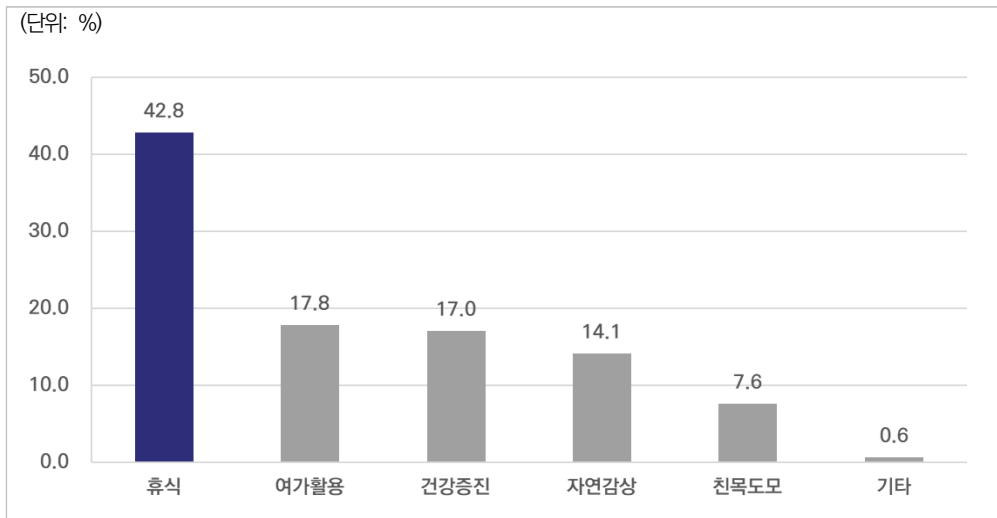
- 공원 방문 경험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97.9%였으며, 강동구(95.4%), 중구(95.3%)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자치구는 광진구(80.3%)였으며 그다음으로 동대문구(82.5%), 종로구(82.9%), 강북구(82.9%) 순으로 낮았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그림 3-9] 자치구별 공원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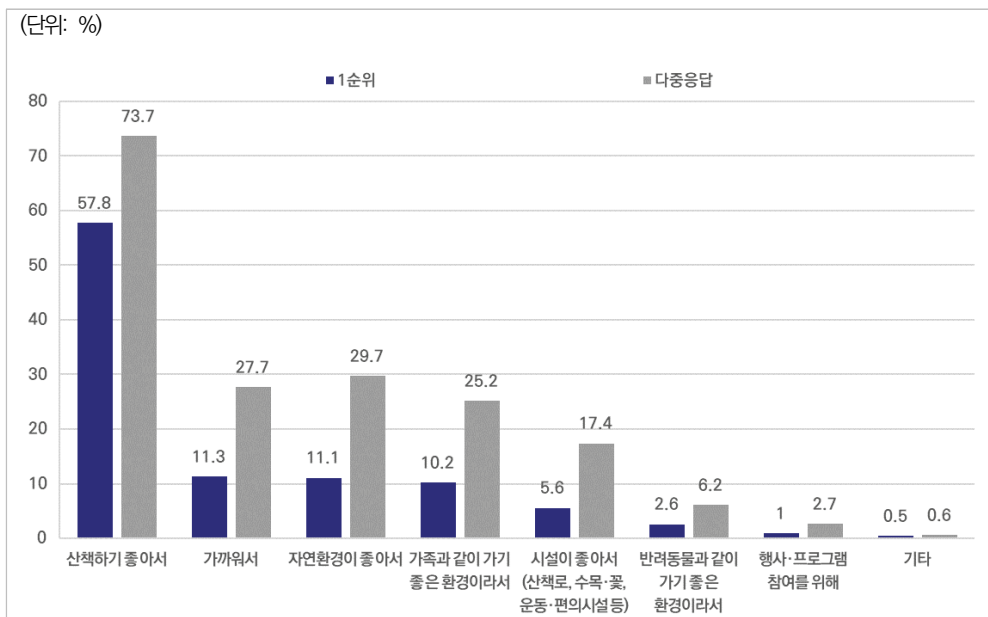
- 서울시민의 42.8%는 휴식을 위해 공원을 방문하며 여가활용(17.8%)과 건강증진(17.0%), 자연감상(14.1%), 친목도모(7.6%)의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4,427)

[그림 3-10] 서울시민의 공원 방문 목적

- 서울시민의 공원 방문 이유는 산책하기 좋아서가 1순위 응답 57.8%, 다중응답 7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산책 다음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이유로는 1순위 기준으로 접근성(11.3%), 자연환경(11.1%),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환경(10.2%)이 높게 나타나 공원의 환경이 주요한 방문 이유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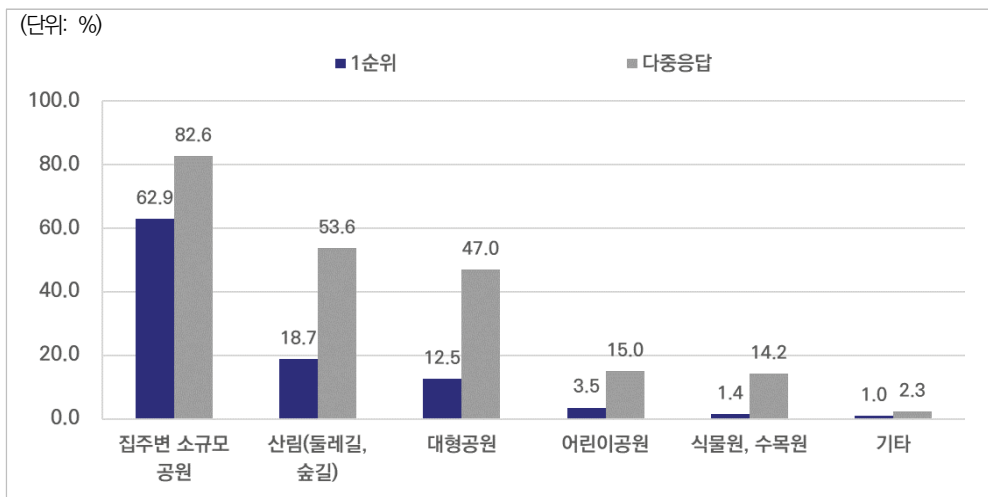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1순위: 4427, 다중응답: N=4,469, 응답 8,183)

[그림 3-11] 서울시민의 공원 방문 이유(1순위, 다중응답)

I 서울시민이 방문하는 공원

서울시민이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공원은 집주변 소규모 공원, 다음으로 산림(둘레길, 숲길)과 대형공원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민이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공원의 1순위와 다중응답 분석 결과 집주변 소규모 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산림(둘레길, 숲길)과 대형공원이 그 다음으로 자주 방문하는 공원으로 나타남
- 집주변 소규모 공원의 응답자는 1순위 응답 62.9%, 다중응답의 82.6%로 대다수의 서울시민이 집주변 소규모 공원을 방문하고 있었음
- 산림(둘레길, 숲길)의 다중응답 비율은 53.6%, 대형공원의 다중응답 비율은 47.0%로 대략 서울시민 두 명 중 한 명은 산림(둘레길, 숲길)과 대형공원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어린이공원, 식물원과 수목원의 다중응답 비율이 각각 15.0%, 14.2%였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3-12] 서울시민이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공원(1순위, 다중응답)

-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공원(1순위)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
 - 집주변 소규모 공원 방문 비율은 남성(62.4%)보다는 여성(63.4%)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66.8%)가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68.6%)에서 높게 나타남
 - 주택 형태는 아파트(64.6%)가, 가구형태는 다인 가구(63.1%), 배우자가 있는 경우(63.7%), 직업분류별로는 블루칼라(66.0%)가 가장 높았으며 권역별로는 동남권(70.1%)이 가장 높았음

[표 3-8]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공원(1순위)

(단위: %)

| 변수 | 구분 | 집주변 소규모 공원 | 대형 공원 | 어린이 공원 | 산림 (둘레길, 숲길) | 식물원 수목원 | 기타 | 카이제곱 | 자유 도 | 근사 유의 확률 (양측검정) |
|------|--------|------------------|----------|-----------|--------------------|------------|-----|---------|---------|--------------------------|
| 성별 | 남성 | 62.4 | 18.5 | 4.1 | 13.3 | 1.0 | 0.8 | 12.301 | 5 | 0.031 |
| | 여성 | 63.4 | 18.8 | 3.0 | 11.9 | 1.7 | 1.2 | | | |
| 연령 | 20대 이하 | 60.5 | 28.8 | 2.6 | 5.7 | 1.3 | 1.0 | 261.791 | 20 | <.001 |
| | 30대 | 60.0 | 25.6 | 5.2 | 7.2 | 1.3 | 0.5 | | | |
| | 40대 | 61.2 | 18.2 | 6.4 | 12.8 | 0.9 | 0.5 | | | |
| | 50대 | 66.8 | 11.6 | 2.3 | 16.3 | 1.7 | 1.4 | | | |
| | 60세 이상 | 65.2 | 11.8 | 2.0 | 18.2 | 1.5 | 1.3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68.6 | 15.1 | 1.2 | 14.0 | 0.6 | 0.6 | 54.484 | 15 | <.001 |
| | 고졸 이하 | 66.1 | 12.1 | 3.3 | 15.0 | 2.0 | 1.5 | | | |
| | 대졸 이하 | 61.9 | 20.5 | 3.8 | 11.5 | 1.3 | 1.0 | | | |
| | 대학원 이상 | 59.7 | 22.8 | 3.3 | 13.0 | 0.9 | 0.4 | | | |

| | | | | | | | | |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64.6 | 18.0 | 2.8 | 12.7 | 1.3 | 0.6 | 12.773 | 5 | 0.026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61.5 | 19.3 | 4.1 | 12.4 | 1.4 | 1.3 |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62.5 | 20.7 | 2.6 | 11.4 | 1.4 | 1.4 | 17.489 | 5 | 0.004 |
| | 다인 가구 | 63.1 | 17.5 | 4.0 | 13.2 | 1.3 | 0.8 |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63.7 | 15.6 | 4.2 | 14.6 | 1.2 | 0.7 | 48.119 | 5 | <.001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62.2 | 21.7 | 2.8 | 10.5 | 1.5 | 1.4 |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62.3 | 19.0 | 3.1 | 12.9 | 1.3 | 1.3 | 47.186 | 15 | <.001 |
| | 화이트칼라 | 60.4 | 22.2 | 4.4 | 10.3 | 1.5 | 1.1 | | | |
| | 블루칼라 | 66.0 | 13.7 | 2.5 | 14.7 | 2.0 | 1.0 | | | |
| | 기타 | 63.9 | 17.8 | 3.3 | 13.4 | 0.9 | 0.7 | | | |
| 권역별 | 도심권 | 61.8 | 17.3 | 3.2 | 15.5 | 0.5 | 1.8 | 146.722 | 20 | <.001 |
| | 동북권 | 57.7 | 20.9 | 6.6 | 13.5 | 0.9 | 0.5 | | | |
| | 서북권 | 62.4 | 14.7 | 2.0 | 18.2 | 0.5 | 2.2 | | | |
| | 서남권 | 63.3 | 19.0 | 1.8 | 12.1 | 2.6 | 1.2 | | | |
| | 동남권 | 70.1 | 17.9 | 2.6 | 7.7 | 0.9 | 0.7 | | | |
| 등록장애 인 여부 | 장애인 | 68.5 | 15.0 | 3.9 | 10.2 | 2.4 | | 4.462 | 5 | 0.485 |
| | 장애인 아님 | 62.7 | 18.8 | 3.5 | 12.6 | 1.3 | 1.0 | | | |
| | 전체 | 62.9 | 18.7 | 3.5 | 12.5 | 1.4 | 1 | | | |

주 : 대형공원은 서울숲,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4,483, 응답 9,626)

-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공원의 다중응답 분석결과 대형공원의 방문 비율과 산림(둘레길, 숲길)의 방문 비율은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형공원의 방문 비율은 낮아지고 산림(둘레길, 숲길)의 방문 비율이 높아졌는데 20대 이하의 대형공원 방문 비율은 62.8%인데 반해 60세 이상의 방문 비율은 33.7%로 크게 차이남
 - 교육수준별로는 대형공원과 산림(둘레길, 숲길)의 방문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음
 - 중학교 이하 집단은 대형공원 방문 비율이 28.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산림(둘레길, 숲길)의 방문 비율은 63.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
 - 대학원 이상 집단은 대형공원 방문 비율이 52.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산림(둘레길, 숲길)의 방문 비율은 48.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음
- 어린이공원과 식물원, 수목원의 경우 특정 계층의 방문 비중이 높이 나타남
 - 어린이공원의 경우 30대(20.8%)와 40대(23.1%)의 비율이 높았으며 아파트가 아닌 주택형태(16.0%)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17.0%)와 다인 가구(16.5%)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식물원, 수목원의 방문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0.1%)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18.6%)와 고졸이하(16.7%)가

높은 수준을 보임

- 권역별로 식물원과 수목원의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남권(20.6%)으로 나타나 식물원의 소재지에 따른 근접성의 결과인 것으로 보임
- 등록장애인의 방문 비율이 22.8%로 비등록장애인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됨

[표 3-9]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공원(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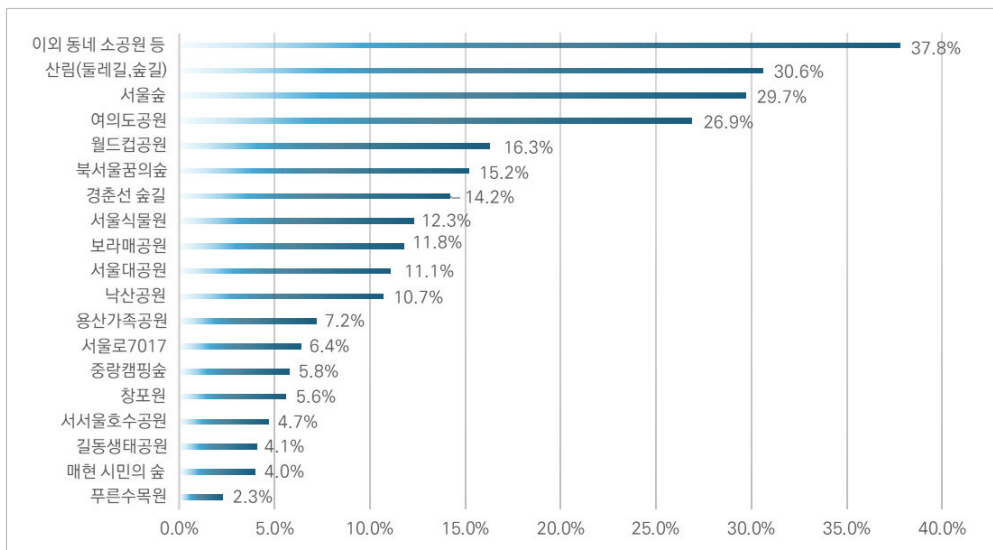
(단위: %)

| 변수 | 구분 | 집주변 소규모 공원 | 대형공원 | 어린이 공원 | 산림(둘레 길, 숲길) | 식물원, 수목원 |
|-------------|-------------------------|------------------|------|-----------|-----------------|-------------|
| 성별 | 남성 | 82.1 | 47.7 | 16.5 | 56.1 | 13.3 |
| | 여성 | 83.1 | 46.6 | 13.8 | 51.6 | 14.8 |
| 연령 | 20대 이하 | 78.3 | 62.8 | 12.3 | 38.2 | 9.8 |
| | 30대 | 79.3 | 62.4 | 20.8 | 38.7 | 11.1 |
| | 40대 | 82.9 | 49.3 | 23.1 | 49.6 | 12.3 |
| | 50대 | 85.6 | 38.6 | 8.8 | 62.9 | 14.0 |
| | 60세 이상 | 84.3 | 33.7 | 9.5 | 67.1 | 20.1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83.8 | 28.7 | 10.8 | 63.5 | 18.6 |
| | 고졸 이하 | 82.5 | 34.4 | 14.0 | 58.5 | 16.7 |
| | 대졸 이하 | 83.2 | 51.6 | 15.4 | 52.1 | 13.0 |
| | 대학원 이상 | 79.8 | 52.9 | 16.0 | 48.3 | 13.9 |
| 주택형태 | 아파트 | 83.3 | 48.4 | 13.7 | 54.7 | 14.8 |
| | 단독/다세대/연립/ 기타 | 82.2 | 46.0 | 16.0 | 52.7 | 13.6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80.9 | 46.4 | 10.7 | 50.0 | 14.6 |
| | 다인 가구 | 83.3 | 47.3 | 16.5 | 54.8 | 14.0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83.2 | 44.7 | 17.0 | 55.7 | 15.4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81.7 | 50.8 | 11.7 | 50.1 | 12.2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80.5 | 47.3 | 14.6 | 51.7 | 13.7 |
| | 화이트칼라 | 82.1 | 52.7 | 16.3 | 48.6 | 12.0 |
| | 블루칼라 | 82.7 | 40.9 | 14.1 | 60.1 | 15.9 |
| | 기타 | 84.2 | 44.8 | 14.4 | 55.8 | 15.6 |
| 권역별 | 도심권 | 81.8 | 47.8 | 14.5 | 55.0 | 10.9 |
| | 동북권 | 80.0 | 49.1 | 20.8 | 55.4 | 12.0 |
| | 서북권 | 83.8 | 40.3 | 10.6 | 58.6 | 12.1 |
| | 서남권 | 83.3 | 45.0 | 10.4 | 51.1 | 20.6 |
| | 동남권 | 85.6 | 51.2 | 16.2 | 50.4 | 9.9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83.3 | 46.5 | 19.3 | 59.6 | 22.8 |
| | 장애인 아님 | 82.6 | 47.1 | 14.9 | 53.4 | 13.9 |
| | 전체 | 82.6 | 47.0 | 15.0 | 53.6 | 14.2 |

주 : 대형공원은 서울숲,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4,483, 응답 9,626)

- 서울시민이 최근 6개월간 방문한 공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공원은 동네 소공원(37.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둘레길, 숲길 등 산림(30.6%)이었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4,427, 응답11,362)

[그림 3-13] 최근 6개월간 방문한 공원(19개, 다중응답)

- 동네 소공원과 산림(둘레길, 숲길)을 제외한 17개 공원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과 가장 높은 방문 비율을 보인 공원은 서울숲(35.4%)과 여의도 공원(30.9%)이었으며, 다음으로 많이 방문한 공원은 월드컵공원(20.5%), 북서울꿈의숲(19.2%), 경춘선 숲길(16.9%)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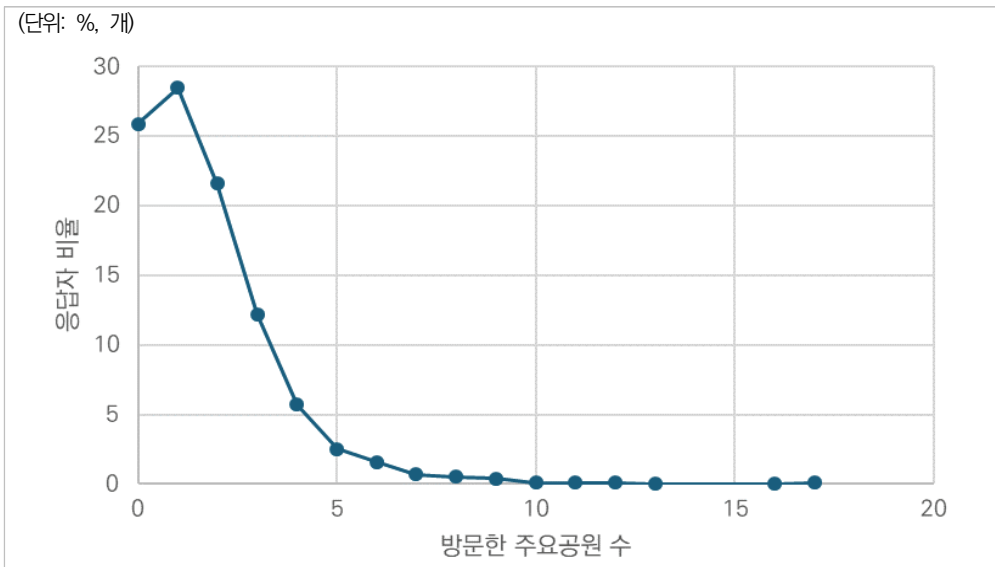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3,703, 응답 8,500)

[그림 3-14] 최근 6개월간 방문한 주요 공원(17개, 다중응답)

**서울시민이 최근 6개월간 방문한 주요 공원(17개)의 수는 평균 1.7개, 동네 소공원
과 산림(둘레길, 숲길) 외에 서울의 주요 공원을 1개 정도 방문**

- 방문한 주요 공원 개수가 1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0개의 비율이 25.9%로 동네 소공원이나 산림(둘레길, 숲길) 외에 다른 공원을 방문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음
- 최근 6개월간 방문한 주요 공원의 개수가 2개인 비율은 21.6%, 3개는 12.2%, 4개인 비율은 5.7%였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그림 3-15] 최근 6개월간 방문한 주요 공원(17개, 다중응답)

- 최근 6개월간 방문한 서울의 주요 공원의 개수는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개), 30대(1.96개), 40대(1.86개)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60세 이상은 1.47개로 가장 낮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이 1.85개로 전체 평균(1.70개)보다 높았으며 중학교 이하는 1.18개, 고졸 이하는 1.33개였음
 -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1.85개, 가구형태는 다인 가구가 1.73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72개,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1.81개)과 화이트칼라(1.86개)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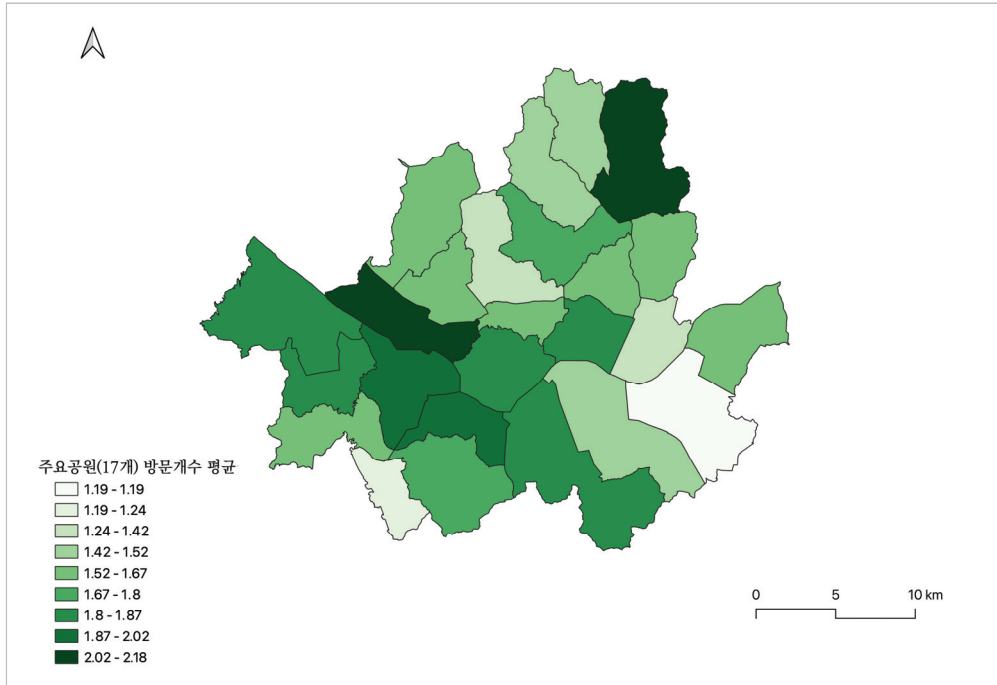
- 권역별로는 서북권(1.81개)과 서남권(1.78개)이 평균(1.7개)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동남권이 1.53개로 주요 공원 방문 개수가 가장 적었음

[표 3-10] 최근 6개월간 방문한 주요 공원 개수 평균

| | | | | | (단위: 개수) | | |
|----------|---------------|------|-------|--------|----------|--|--|
| 변수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T/F | 유의확률 | | |
| 성별 | 남성 | 1.75 | 1.8 | -0.731 | 0.465 | | |
| | 여성 | 1.66 | 1.699 | | | | |
| 연령 | 20대 이하 | 2.00 | 1.802 | 2.998 | 0.018 | | |
| | 30대 | 1.96 | 1.942 | | | | |
| | 40대 | 1.86 | 1.781 | | | | |
| | 50대 | 1.44 | 1.514 | | | | |
| | 60세 이상 | 1.47 | 1.647 |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1.18 | 1.442 | 21.304 | <.001 | | |
| | 고졸 이하 | 1.33 | 1.58 | | | | |
| | 대졸 이하 | 1.85 | 1.823 | | | | |
| | 대학원 이상 | 1.85 | 1.562 | |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1.85 | 1.863 | 8.021 | <.001 | |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1.59 | 1.64 | |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1.63 | 1.764 | -3.219 | 0.001 | | |
| | 다인 가구 | 1.73 | 1.736 | |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1.72 | 1.738 | 2.744 | 0.006 | | |
| | 배우자 없음 | 1.67 | 1.753 | | | | |
| | (미혼/이혼/사별/기타) | | | |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1.81 | 1.741 | 7.914 | <.001 | | |
| | 화이트칼라 | 1.86 | 1.819 | | | | |
| | 블루칼라 | 1.46 | 1.582 | | | | |
| | 기타 | 1.63 | 1.739 | | | | |
| 권역별 | 도심권 | 1.65 | 1.735 | 5.003 | <.001 | | |
| | 동북권 | 1.69 | 1.8 | | | | |
| | 서북권 | 1.81 | 1.715 | | | | |
| | 서남권 | 1.78 | 1.704 | | | | |
| | 동남권 | 1.53 | 1.723 | | | |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1.72 | 1.772 | 0.597 | 0.551 | | |
| | 장애인 아님 | 1.70 | 1.743 | | | | |
| 전체 | | 1.70 | 1.744 | |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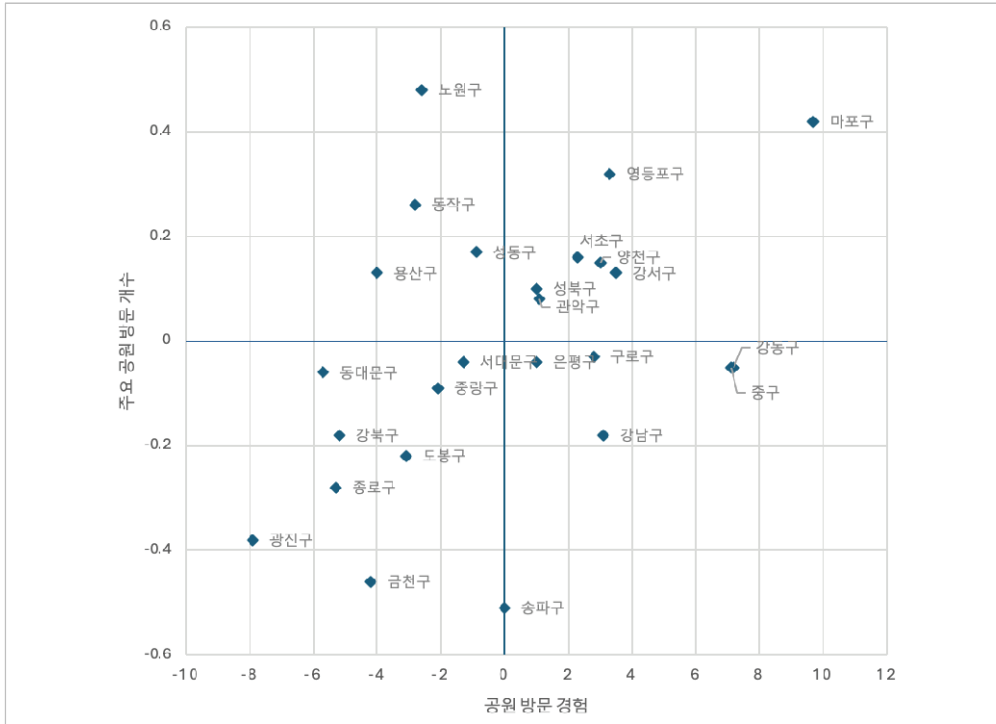
- 서울시민이 방문한 주요 공원(17개)의 개수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가 2.18개로 공원의 방문 개수가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주요 공원 방문 개수가 많고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마포구(2.12개), 영등포구(2.02개), 동작구(1.96개), 성동구(1.86), 서초구(1.86개), 양천구(1.85개), 용산구(1.83개), 용산구(1.83개), 강서구(1.83개), 성북구(1.8개), 관악구(1.78개) 순이었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그림 3-16] 자치구별 주요 공원(17개) 방문 개수 평균

- 자치구별 공원 방문 경험과 방문한 주요 공원 개수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원 방문 경험과 주요 공원 방문 개수의 평균을 0점으로 하여 자치구를 4사분면에 위치시킴
 - 공원 방문 경험과 주요 공원 방문 개수가 모두 평균 이상으로 1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양천구, 강서구, 성북구, 관악구임
 - 공원 방문 경험과 주요 공원 방문 개수가 모두 평균 이하로 3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광진구, 종로구, 금천구, 강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중랑구, 서대문구임
 - 공원 방문 경험은 평균 이상이지만 주요 공원 방문 개수가 평균 이하인 자치구는 강동구, 중구, 구로구, 은평구, 강남구였으며, 이러한 자치구는 주로 집 근처 소규모 공원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공원 방문 경험은 평균 이하이지만 주요 공원 방문 개수가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노원구, 동작구, 용산구, 성동구였음



자료: 서울세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그림 3-17] 자치구별 공원 방문 경험과 주요 공원 방문 개수

- 서울시민 중 최근 6개월간 1개 이상의 주요 공원에 방문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자, 관리전문직과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1개 이상의 주요 공원을 방문한 비율이 높았음
 -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77.2%)가 그 외의 주택(71.7)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78.3%)과 화이트칼라(77.7%) 직군이 다른 직군보다 비율이 높았음
 - 권역별로는 서남권(77.7%)과 서북권(76.9%)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남권(69.6%)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표 3-11] 1개 이상의 주요 공원 방문자 특성

| | | | | | (단위: %) |
|-------------|-------------------------|------|---------|-----|----------------------|
| 변수 | 구분 | 방문 | 카이제곱 | 자유도 |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
| 성별 | 남성 | 74.7 | 0.775 | 1 | 0.379 |
| | 여성 | 73.6 | | | |
| 연령 | 20대 이하 | 80.0 | 69.875 | 4 | 〈.001 |
| | 30대 | 79.7 | | | |
| | 40대 | 77.9 | | | |
| | 50대 | 69.0 | | | |
| | 60세 이상 | 68.5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60.1 | 111.388 | 3 | 〈.001 |
| | 고졸 이하 | 64.8 | | | |
| | 대졸 이하 | 77.0 | | | |
| | 대학원 이상 | 83.2 |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77.2 | 18.902 | 1 | 〈.001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71.7 |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72.2 | 3.316 | 1 | 0.069 |
| | 다인 가구 | 74.7 |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74.7 | 1.921 | 1 | 0.166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73.0 |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78.3 | 37.609 | 3 | 〈.001 |
| | 화이트칼라 | 77.7 | | | |
| | 블루칼라 | 68.8 | | | |
| | 기타 | 71.5 | | | |
| 권역별 | 도심권 | 72.0 | 24.713 | 4 | 〈.001 |
| | 동북권 | 72.6 | | | |
| | 서북권 | 76.9 | | | |
| | 서남권 | 77.7 | | | |
| | 동남권 | 69.6 | | |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75.2 | 0.087 | 1 | 0.768 |
| | 장애인 아님 | 74.0 | | | |
| 전체 | | 74.1 |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 서울시민 중 최근 6개월간 산림(둘레길, 숲길) 방문 비율은 28.4%로 고연령층, 아파트 거주자, 다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북권에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산림(둘레길, 숲길)의 방문 비율이 높아졌으며 60대 이상은 37.8%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14.3%로 가장 낮았음

-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가 31.1%로 그 외 주택형태(26.3%)보다 높았고, 가구 형태는 1인 가구(25.7%)에 비해 다인 가구(29.3%)가 그리고 혼인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31.0%)가 배우자가 없음(24.2%)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31.9%), 블루칼라(30.0%), 기타(30.1%)에 비해 화이트칼라(24.0%) 직군이 낮은 수준을 보였음

[표 3-12] 산림(둘레길, 숲길) 방문자 특성

| | | | | | (단위: %) |
|-------------|-------------------------|------|---------|-----|----------------------|
| 변수 | 구분 | 방문 | 카이제곱 | 자유도 |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
| 성별 | 남성 | 29.5 | 2.425 | 1 | 0.119 |
| | 여성 | 27.5 | | | |
| 연령 | 20대 이하 | 14.3 | 187.082 | 4 | 〈.001 |
| | 30대 | 17.7 | | | |
| | 40대 | 26.9 | | | |
| | 50대 | 34.9 | | | |
| | 60세 이상 | 37.8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25.0 | 1.221 | 3 | 0.748 |
| | 고졸 이하 | 28.6 | | | |
| | 대졸 이하 | 28.5 | | | |
| | 대학원 이상 | 28.4 |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31.1 | 13.632 | 1 | 〈.001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26.3 |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25.7 | 6.279 | 1 | 0.012 |
| | 다인 가구 | 29.3 |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31.0 | 26.609 | 1 | 〈.001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24.2 |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31.9 | 23.364 | 3 | 〈.001 |
| | 화이트칼라 | 24.0 | | | |
| | 블루칼라 | 30.0 | | | |
| | 기타 | 30.1 | | | |
| 권역별 | 도심권 | 27.1 | 8.043 | 4 | 0.09 |
| | 동북권 | 29.3 | | | |
| | 서북권 | 32.0 | | | |
| | 서남권 | 26.3 | | | |
| | 동남권 | 28.3 | | | |
| 등록장애인 여부 | 장애인 | 32.0 | 0.836 | 1 | 0.361 |
| | 장애인 아님 | 28.3 | | | |
| 전체 | | 28.4 |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 서울시민 중 최근 6개월간 동네 소공원을 방문한 비율은 35.0%이며 특히 여성, 고연령층, 아파트 거주자, 다인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그리고 동남권에서 높은 수준
- 성별로는 남성(32.5%)보다 여성(36.9%)의 동네 소공원 방문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방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36.7%)가 그 외의 주택(33.7%)보다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에 비해서 다인 가구(36.2%)에서, 혼인여부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36.8%)가 없는 경우(32.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직업분류별로는 화이트칼라(29.5%) 직군이 블루칼라(37.6%), 기타(38.6%), 관리전문직(35.5%)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서북권(38.4%)이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교육수준별로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학원 이상(39.4%)과 중학교 이하(38.9%)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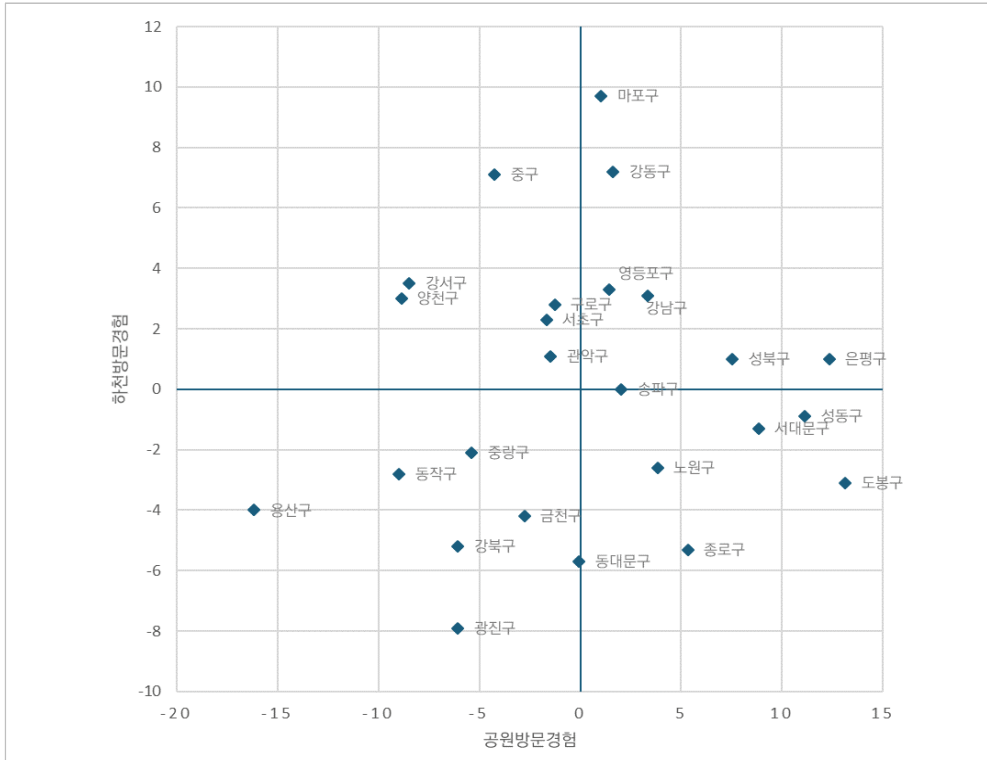
[표 3-13] 동네 소공원 방문자 특성

| | | | | | (단위: %) |
|------|-------------------------|------|--------|-----|----------------------|
| 변수 | 구분 | 방문 | 카이제곱 | 자유도 |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
| 성별 | 남성 | 32.5 | 10.576 | 1 | 0.001 |
| | 여성 | 36.9 | | | |
| 연령 | 20대 이하 | 22.9 | 65.717 | 4 | 〈.001 |
| | 30대 | 29.8 | | | |
| | 40대 | 36.7 | | | |
| | 50대 | 37.4 | | | |
| | 60세 이상 | 40.3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 38.9 | 7.143 | 3 | 0.067 |
| | 고졸 이하 | 34.9 | | | |
| | 대졸 이하 | 34.0 | | | |
| | 대학원 이상 | 39.4 | | | |
| 주택형태 | 아파트 | 36.7 | 5.044 | 1 | 0.025 |
| | 단독/다세대/연립/기타 | 33.7 | | |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31.8 | 8.271 | 1 | 0.004 |
| | 다인 가구 | 36.2 | | | |
| 혼인여부 | 배우자 있음 | 36.8 | 10.563 | 1 | 0.001 |
| | 배우자 없음 (미혼/이혼/사별/기타) | 32.3 | | | |

| | | | | | |
|-------|--------|------|--------|---|-------|
| 직업분류 | 관리전문직 | 35.5 | 34.102 | 3 | 〈.001 |
| | 화이트칼라 | 29.5 | | | |
| | 블루칼라 | 37.6 | | | |
| | 기타 | 38.6 | | | |
| 권역별 | 도심권 | 32.4 | 25.122 | 4 | 〈.001 |
| | 동북권 | 33.3 | | | |
| | 서북권 | 38.4 | | | |
| | 서남권 | 32.5 | | | |
| | 동남권 | 41.1 | | |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 39.2 | 0.994 | 1 | 0.319 |
| 여부 | 장애인 아님 | 34.9 | | | |
| | 전체 | 35.0 | | | |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N=5,000)

- 자치구별로 공원 방문 경험과 하천 방문 경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원과 하천 경험의 자치구별 차이가 존재
 - 공원 방문 경험과 하천 방문 경험의 평균을 0점으로 하여 자치구를 4분면에 위치시킴
 - 공원 방문 경험과 하천 방문 경험이 모두 평균 이상인 1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은평구, 성북구, 마포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임
 - 공원 방문 경험과 하천 방문 경험이 모두 평균 이하인 3사분면에 위치한 자치구는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임
 - 공원 방문 경험은 평균 이상이지만 하천 방문 경험이 평균 이하인 자치구는 도봉구, 성동구, 서대문구, 노원구, 종로구였으며 공원 방문 경험은 평균 이하이지만 하천 방문 경험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양천구, 강서구, 중구, 구로구, 서초구, 관악구였음



자료: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3

[그림 3-18] 자치구별 공원 방문 경험과 하천 방문 경험

2023 서울서베이 심층분석

| | | |
|-----|----------------------------------------|-----|
| 발행 | 서울특별시 | |
| 발행일 | 2024년 2월 | |
| 발행처 |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02-2133-4365) | |
| 제작 | 디지털정책관 | 박진영 |
| | 빅데이터담당관 | 윤충식 |
| | 통계조사팀장 | 조수정 |
| | 통계조사팀 | 최성용 |
| | 통계조사팀 | 전연욱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